

#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

2019

본 연구는 서울시NPO지원센터 NPO참여예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목 차

##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 ◇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본 공익활동가의 현실

안현찬(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활동가 이야기와 제언

정민석(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처장)

---

이진홍(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

신인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란아(서울시 NPO지원센터 센터장)

---

## ■ 공익활동가 선행연구조사 검토

조철민(NPO스쿨)

---

## ■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수요 조사 설문지

---

## 발표 1

#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1.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활동가 건강, 소득과 복지제도, 공익활동 만족도, 정책지원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고자 함.

### ○ 조사기간 : 2019년 9월 9일~9월 30일

### ○ 조사대상 : 전국 총 2,660명(동행 조합원 1,100명/한국시민센터협의회 소속 1,500명)

## 2. 응답자 일반 현황

### 1) 응답자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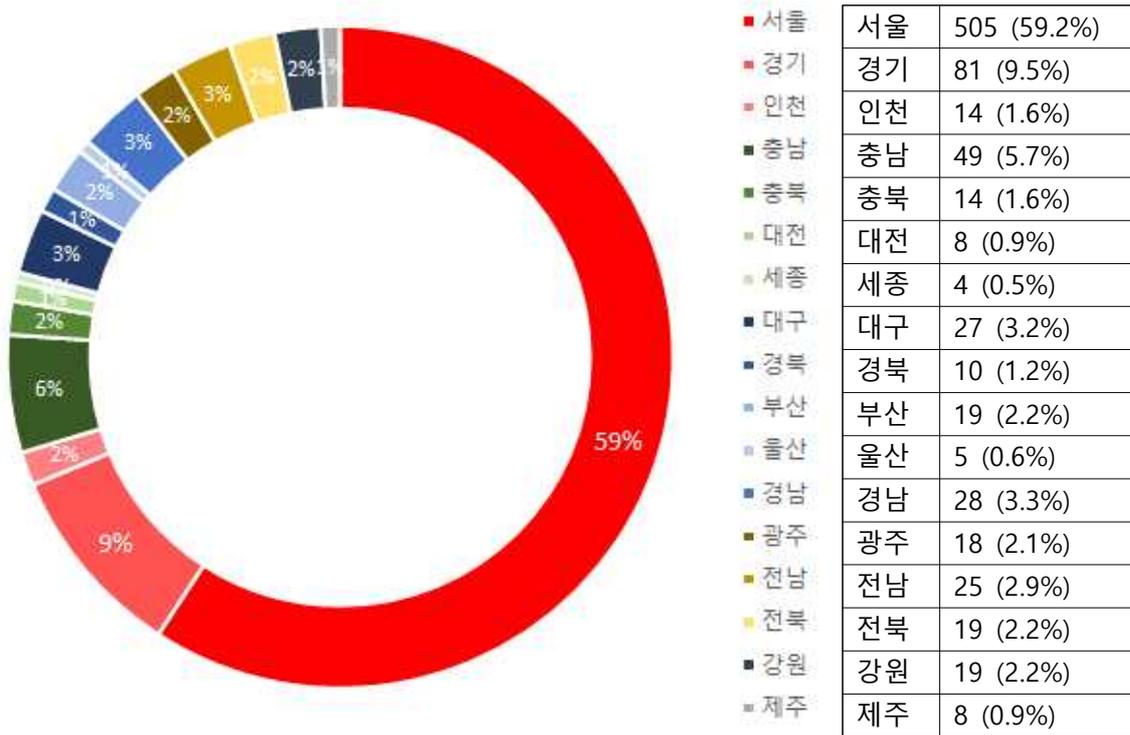
- 총 응답자 853명으로 조사 대상자 2,660명 중 32.1%의 응답률을 보임. 조사 대상자 중 동행 조합원은 1,100명으로 이중 674명(61.3%)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소속은 1,500명 중 179명(11.9%)이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이 497명(58.3%), 남성 356명(41.7%)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3.4세(최소 22세, 최대 78세)였으며, 여성 평균 나이는 42.1세로 남성 (45.2세)보다 낮았음 ( $p<0.001$ ).
- 응답자의 평균 활동경력은 10.5년으로, 여성은 9.4년으로 남성(12.1년)보다 낮았음
- 응답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여성은 평 활동가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사무국·처·총장(이하 상급책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p<0.001$ ).
-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는 733명(85.9%)이며 이중 상근자는 696명, 반상근 활동가는 37명이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활동가는 120명(14.1%)이 설문에 참여함.

〈표 4〉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계		853 (100%)	497 (100%)	356 (100%)
나이	20대	63 (7.4%)	49 (9.9%)	14 (3.9%)
	30대	265 (31.1%)	164 (33.1%)	101 (28.4%)
	40대	283 (33.2%)	162 (32.7%)	121 (34%)
	50대	195 (22.9%)	103 (20.8%)	92 (25.8%)
	60대 이상	46 (5.4%)	18 (3.6%)	28 (7.9%)
경력	1년 이하	55 (6.4%)	41 (8.2%)	14 (3.9%)
	2-3년	94 (11%)	65 (13.1%)	29 (8.1%)
	4-5년	120 (14.1%)	80 (16.1%)	40 (11.2%)
	6-10년	253 (29.7%)	146 (29.4%)	107 (30.1%)
	11-15년	139 (16.3%)	79 (15.9%)	60 (16.9%)
	16년 이상	192 (22.5%)	86 (17.3%)	106 (29.8%)
직급	평활동가	216 (29.5%)	157 (36%)	59 (19.9%)
	중간책임자	183 (25%)	109 (25%)	74 (24.9%)
	사무국·처·총 장	218 (29.7%)	100 (22.9%)	118 (39.7%)
	기타	116 (15.8%)	70 (16.1%)	46 (15.5%)
활동형태	상근	696 (81.6%)	412 (82.9%)	284 (79.8%)
	반 상근	37 (4.3%)	24 (4.8%)	13 (3.7%)
	개인 활동	120 (14.1%)	61 (12.3%)	59 (16.6%)

## 2) 지역별 분포

- 전체 응답자 중 59% (505명)가 주된 활동 지역이 서울이었고,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70% (600명) 이었음.



[그림 2]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서울과 비 서울을 구분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서울이 비 서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으며, 평 활동가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비 서울 지역은 상급책임자의 비율이 높았음. 비 서울 지역의 경우 상근자가 1~2인 규모의 조직, 오랜 경력의 사무국장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서울과 비서울은 경력, 나이, 직급에서의 차이로 인해 지역적 요인에 따른 비교에 제한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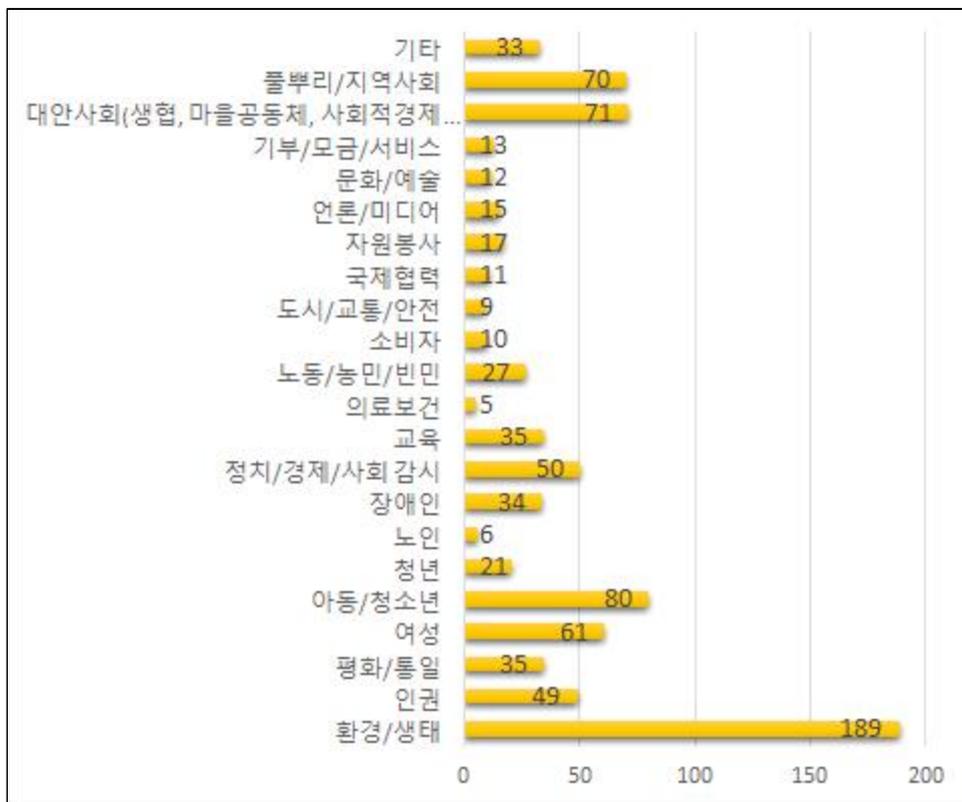
〈표 5〉 서울과 비서울의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지역		p-value	
	서울	비 서울		
평균 경력 (년)	9.4	12.2	<0.001	
평균 나이 (세)	41.5	46.2	<0.001	
직급	평활동가	165 (37.6%)	51 (17.3%)	<0.001
	중간책임자	118 (26.9%)	65 (22.1%)	
	상급책임자	78 (17.8%)	140 (47.6%)	
	기타	78 (17.8%)	38 (12.9%)	
평균 급여(만원)	200.6	203.6	0.629	

### 3) 응답자의 활동 분야

- 응답자 중 환경생태분야 활동가가 189명(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80명(9.4%), 대안사회 71명(8.3%), 풀뿌리지역사회 70명(8.2%) 순이었음.



[그림 3] 응답자의 활동분야 분포 (명)

### 4) 응답자가 속한 단체의 상근자 규모

- 응답자가 속한 단체의 상근자의 수가 2명 이하가 119명(17.8%), 3-5명이 206명(30.9%), 20명 초과는 82명(12.3%)이었음. 비 서울지역의 경우 상근자 수가 5명 이하라고 응답한 활동가는 64.9%로 서울지역의 38.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전국단체의 지부인 경우 지부소속 인원수만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동행에 가입된 단체의 최대 상근자 수를 고려하여 주관식 응답에서 서울지역은 50명 이상, 비 서울지

역은 20명 이상을 이상 값(outlier)으로 판단하고 결측값(66명) 처리함.

〈표 6〉 서울과 비서울의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지역		전체
		서울	비 서울	
상근 자	1-2명	44 (10.9%)	75 (28.6%)	119 (17.8%)
	3-5명	111 (27.4%)	95 (36.3%)	206 (30.9%)
	6-10명	75 (18.5%)	67 (25.6%)	142 (21.3%)
	11-20명	93 (23.0%)	25 (9.5%)	118 (17.7%)
	> 20명	82 (20.2%)	-	82 (12.3%)
	계	405 (100%)	262 (100%)	667 (100%)

### 5)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형태

-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형태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414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는 153명(20.9%)이었음.

〈표 7〉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형태

구분	응답자수(명)	백분율(%)
① 임의단체(비법인 또는 미등록단체)	153	20.9
②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	414	56.5
③ 다른 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등)	56	7.6
④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33	4.5
⑤ 중간지원조직	38	5.2
⑥ 기타	39	5.3
계	733	100.0

### 6) 응답자의 가구 구성 및 주거 상황

- 응답자 중 1인 가구가 174명(20%)이었으며, 본인 포함 가구 구성원이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4명(34%)으로 나타남.
- 현재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가구 구성원이 없다는 응답자는 330명(38.7%)이며, 3명 이상은 166명(19.5%)이었음.



[그림 4] 본인 포함 가구 구성원 수



[그림 5] 부양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수

- 반려동물이 있는 활동가는 181명(21%)이며, 이중 반려동물이 2마리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은 61명(7%)이었음.



[그림 6]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활동가 현황

- 응답자 중 327명(38.3%)은 가구원의 자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245명(28.7%), 월세 210명(24.6%)임

〈표 8〉 응답자 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

구분	응답자 수(명)	백분율(%)
자가 소유	327	38.3
전세	245	28.7
월세(반전세/사글세)	210	24.6
무상	25	2.9
기타	46	5.4
계	853	100.0

- 월평균 임대료는 평균 37.3만원이며 최소 5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나타남.

〈표 9〉 응답자 중 월세 임대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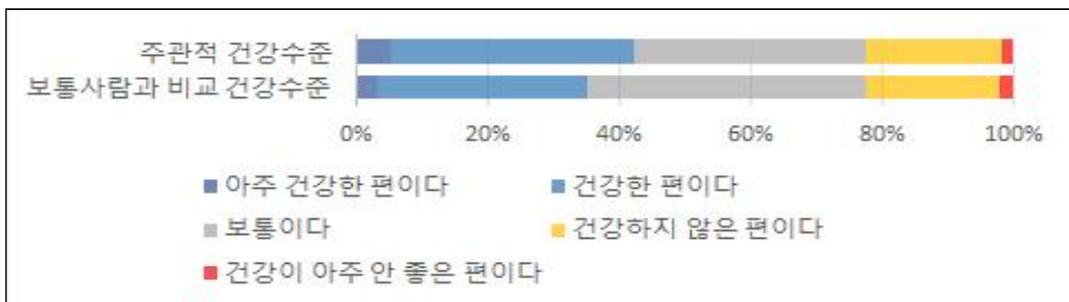
월세 임대료	응답자 수(명)	백분율(%)
20만원 미만	27	12.9
20-29만원	39	18.7
30-39만원	47	22.5
40-49만원	41	19.6
50만원 이상	55	26.3
계	209	100

### 3. 공익활동가의 건강

#### 1) 건강수준

##### ○ 조사 결과

-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는 비율은 42.3%이고, 동일한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임.
- 성별, 직급별 차이는 없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보통사람과 비교한 건강수준 점수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 활동형태에 따라서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활동가가 비교 건강수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그림 7] 공익활동가의 건강수준

〈표 10〉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건강수준 비교

구분		주관적 건강 수준		보통사람 비교 건강수준	
		점수(5점 만점)	p-value	점수(5점 만점)	p-value
전체		3.23		3.14	
성별	1. 여성	3.19	0.080	3.12	0.431
	2. 남성	3.29		3.17	
연령	1. 20대	3.08	<0.001	2.89	<0.001
	2. 30대	3.15		3.01	
	3. 40대	3.19		3.14	
	4. 50대	3.34	*경향분석 (<0.001)	3.27	*경향분석 (<0.001)
	5. 60대 이상	3.67		3.65	
직급	1. 평활동가	3.13	0.223	3.01	0.168
	2. 중간책임자	3.24		3.15	
	3. 상급책임자	3.27		3.14	
활동형태	1. 상근	3.23	0.127	3.12	<0.05
	2. 반상근	2.97		3.00	
	3. 개인활동	3.32		3.31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도록 역부호화 하였음.

2) 그룹 간 비교는 t-test, anova 분석

3) 서열이 있는 그룹의 평균값의 선형 경향분석은 Jonckheere-Terpstra test 실시

○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교해보면, 일반국민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27.8%인데 반해 공익활동가는 42.3%로 일반국민보다 높지만 노동패널(64.9%)보다는 낮은 수준.
- 일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은 아래 표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 결과와 유사하게 고령자보다 낮은 연령 군에서 양호한 편인데, 본 조사에서는 역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특이성을 나타냄.
-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 공익활동가 조사, 노동패널 조사 결과에서 주관적 건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노동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겠음. 건강노동자효과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 초기 배제되기 때문에 직업역학연구에서 노동자집단이 일반인구집단보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함 (Last, 1995).
- 이승렬(2007)의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종사자(64.3%), 기술공 및 준전문가(62.8%), 전문가(64.7%)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와 달리 단순노무자(46.2%), 서비스종사자(48.6%), 관리자(45.2%)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낮았음.
- 요약하면, 공익활동가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일반국민보다 높은 편이지만, 노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 집단과 유사하며, 일반적 경향성과 달리 낮은 연령군에서 더 낮은 건강수준을 보였음.

<표 11> 공익활동가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과 선행연구 비교

구분	공익활동가 조사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	
			유혜림(2018)	이승렬(2007)
전체	42.3%	27.8%	64.9%	유혜림(2018)
20대	36.5%	35.3%	75.3%	이승렬(2007)
30대	39.2%	32.5%	61.0%	
40대	39.6%	28.9%	49.8%	
50대	47.7%	25.2%	36.8%	
60대 이상	63.0%	22.0%	22.9%	

주: 1)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 :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60대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 값은 60-69세의 값.

3) 유혜림(2018)의 논문 : 7차(2004년)~19차(2016년)의 평균

4) 이승렬(2007)의 보고서 : 6차(2003년)~8차(2005년)의 평균

〈표 12〉 직업별 양호한 주관적 건강 인지율(노동패널: 2003~2005)

구분	인지율(%)	구분	인지율(%)
관리자	45.2	판매종사자	57.3
전문가	64.5	농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30.3
기술공 및 준전문가	6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4.9
사무종사자	64.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9.9
서비스종사자	48.6	단순노무 종사자	46.2

주: 1) 자료: 이승렬(2007)의 보고서, pp26~27의 표를 저자가 재정리함

## 2) 만성질환

- 만성질환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험이 있는 활동가는 315명 (36.9%)이며, 그중 근골격계 질환과 순환기계 질환이 159명(18.6%), 151명(17.7%)로 높게 나타남. 만성질환이 3개 이상 갖고 있는 복합만성질환자는 19명(2.2%)로 나타남.
- 만성질환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순환기계질환은 남성이, 근골격계와 호흡기계 질환은 여성이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임.

〈표 13〉 공익활동가의 만성질환 유병률

만성질환		있음
순환기계	예)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151 (17.7%)
내분기계	예) 당뇨병, 갑상선 질환	79 (9.3%)
근골격계	예) 골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좌골신경통 등	159 (18.6%)
호흡기계	예)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결핵, 결핵	52 (6.1%)
복합만성질환		19 (2.2%)
1개 이상의 만성질환		315 (36.9%)

〈표 14〉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1)

구분		순환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유병(명, %)	p-value	유병(명, %)	p-value	유병(명, %)	p-value
전체		151(17.7%)		79(9.3%)		159(18.6%)	
성별	1. 여성	63(12.7%)	<0.001	46(9.3%)	0.994	106(21.3%)	<0.05
	2. 남성	88(24.7%)		33(9.3%)		53(14.9%)	
연령	1. 20대	0	<0.001	2(3.2%)	<0.001*	7(11.1%)	<0.001
	2. 30대	25(9.4%)		15(5.7%)		31(11.7%)	
	3. 40대	45(15.9%)		21(7.4%)		63(22.3%)	
	4. 50대	56(28.7%)		28(14.4%)		43(22.1%)	
	5. 60대 이상	25(54.3%)		13(28.3%)		14(30.4%)	
직급	1. 평활동가	19(8.8%)	<0.001	11(5.1%)	<0.05	36(16.7%)	0.568
	2. 중간책임자	23(12.6%)		13(7.1%)		34(18.6%)	
	3. 상급책임자	52(23.9%)		25(11.5%)		45(20.6%)	

〈표 15〉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비교(2)

구분		호흡기계		복합만성질환		만성질환	
		유병(명, %)	p-value	유병(명, %)	p-value	유병(명, %)	p-value
전체		52(6.1%)		19(2.2%)		315(36.9%)	
성별	1. 여성	39(7.8%)	<0.05	12(2.4%)	0.662	175(35.2%)	0.219
	2. 남성	13(3.7%)		7(2.0%)		140(39.3%)	
연령	1. 20대	6(9.5%)	0.589	0	<0.05*	13(20.6%)	<0.001
	2. 30대	19(7.2%)		2(0.8%)		71(26.8%)	
	3. 40대	14(4.9%)		7(2.5%)		105(37.1%)	
	4. 50대	11(5.6%)		6(3.1%)		94(48.2%)	
	5. 60대 이상	2(4.3%)		4(8.7%)		31(67.4%)	
직급	1. 평활동가	15(6.9%)	0.649	4(1.9%)	0.981*	65(30.1%)	<0.01
	2. 중간책임자	10(5.5%)		3(1.6%)		59(32.2%)	
	3. 상급책임자	17(7.8%)		5(2.3%)		95(43.6%)	

주: 1) 그룹 간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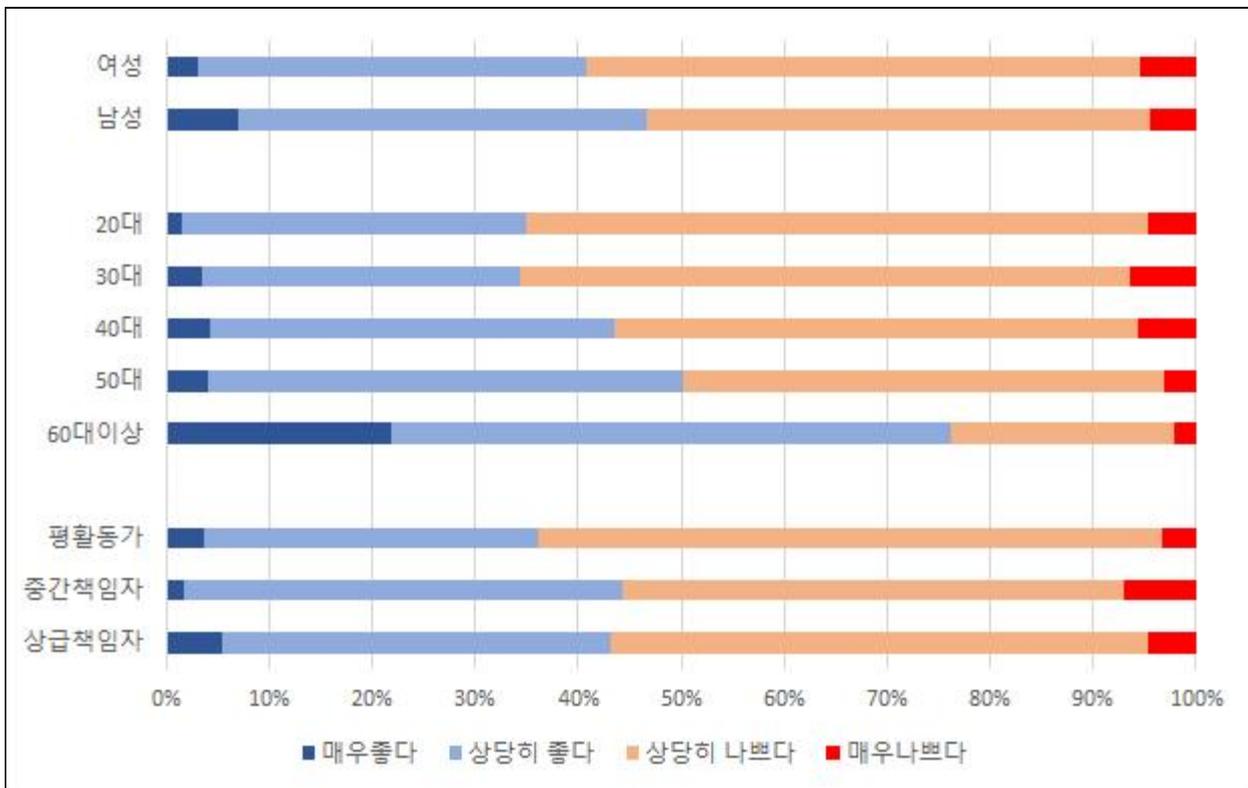
2) 단,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20% 넘는 경우 Fisher의 정확한 검정 실시 (p-value에 \* 표시)

### 3) 수면

- 활동가의 평균 수면시간은 6.37시간이며, 성별, 연령별 차이가 없지만, 직급에 따라 평활동가의 수면시간이 상급책임자보다 많았음.
- 수면의 질은 여성( $p < 0.05$ ), 나이가 어릴수록( $p < 0.001$ ), 평 활동가( $p < 0.05$ )가 상대적으로 나쁨.

〈표 16〉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수면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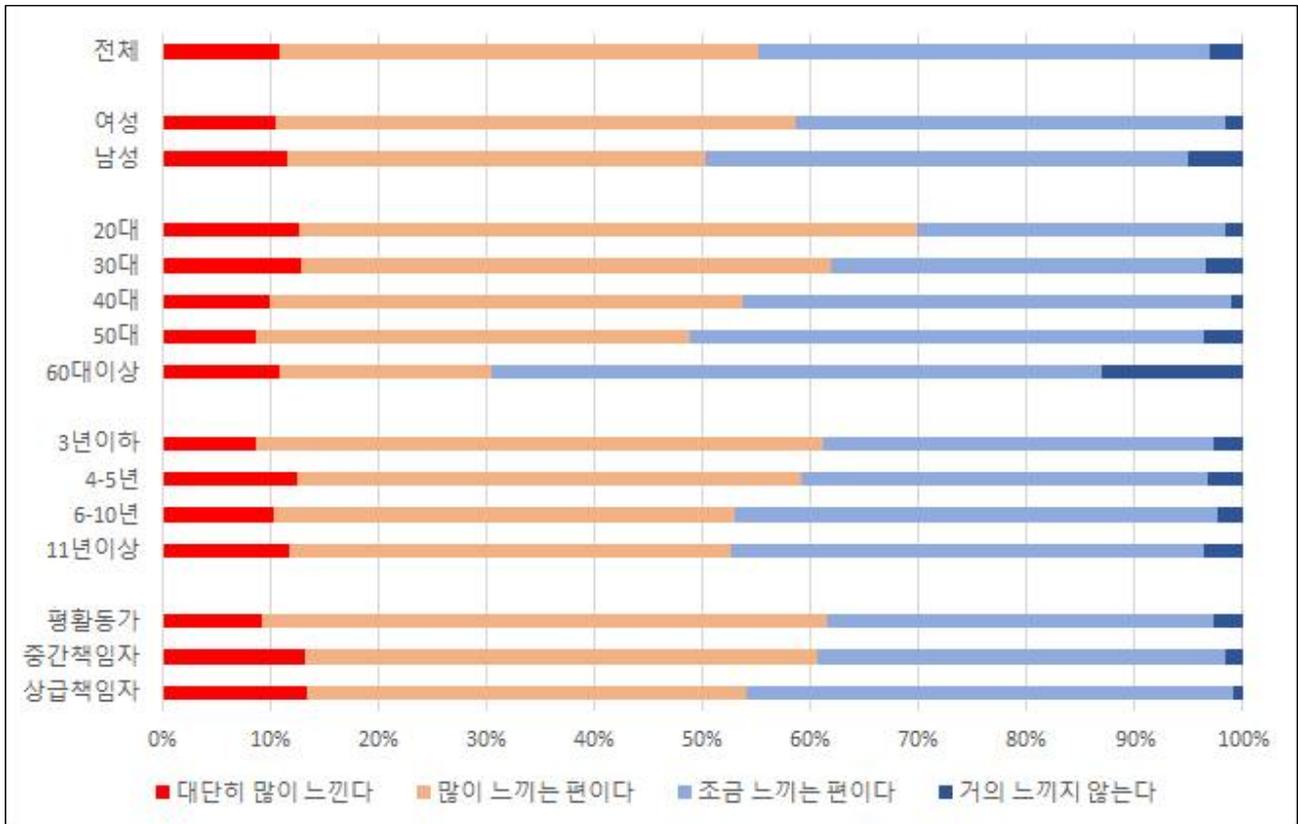
구분		수면시간	
		평균(시간)	p-value
전체		6.37	
성별	1. 여성	6.37	0.739
	2. 남성	6.35	
연령	1. 20대	6.59	0.111
	2. 30대	6.40	
	3. 40대	6.33	
	4. 50대	6.28	
	5. 60대 이상	6.48	
직급	1. 평활동가	6.50	<0.05
	2. 중간책임자	6.31	
	3. 상급책임자	6.26	



[그림 8]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비교

#### 4) 스트레스, 절망감

- 과반이 조금 넘는 활동가(55.1%)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p < 0.001$ )<sup>1)</sup>이,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경향성이 보였으며( $p < 0.001$ )<sup>2)</sup>, 경력과 직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은 연령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남성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낮은 그룹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음. 직급과 경력 모두 여성과 남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림 9] 활동가의 특성별 스트레스 받는 수준 비교

1) t-test

2) Jonckheere-Terpstra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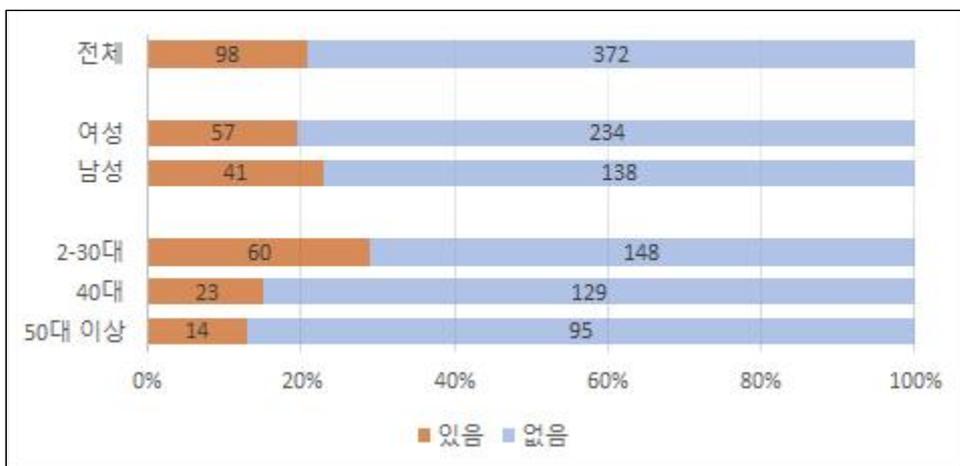
〈표 17〉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스트레스점수(4점)	p-value	스트레스점수(4점)	p-value	스트레스점수(4점)	p-value		
계		2.63							
성별	여성	2.67	<0.05						
	남성	2.57							
나이	20대	2.81	<0.001	2.76	0.069	3.00	<0.05		
	30대	2.71		2.76		2.63			
	40대	2.63		*경향분석		2.64		*경향분석	2.61
	50대	2.54				2.59			2.48
	60대 이상	2.28				2.39			2.21
경력	3년 이하	2.67	0.634	2.72	0.673	2.56	0.984		
	4-5년	2.68		2.73		2.60			
	6-10년	2.61		2.63		2.58			
	10년 이상	2.61		2.66		2.55			
직급	평활동가	2.68	0.715	2.73	0.639	2.56	0.553		
	중간책임자	2.72		2.74		2.69			
	상급책임자	2.67		2.66		2.68			

주: 1)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점수가 높음

○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 경험

-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한 활동가 중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8명(20.9%)이었으며, 2-30대의 경우 전문가 상담비율이 약29%로 다른 연령대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 경험

○ 일반인구집단과 스트레스 인지율 비교

- 공익활동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5.1%로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의 29.1%, 지역사회건강조사(2018년, 서울) 27.7%보다 약 2배 높음. 단, 노동자 집단이 아니어서 단순비교에 한계가 존재함.
- 공익활동가와 일반인구집단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임

〈표 18〉 공익활동가와 일반인구집단의 스트레스 인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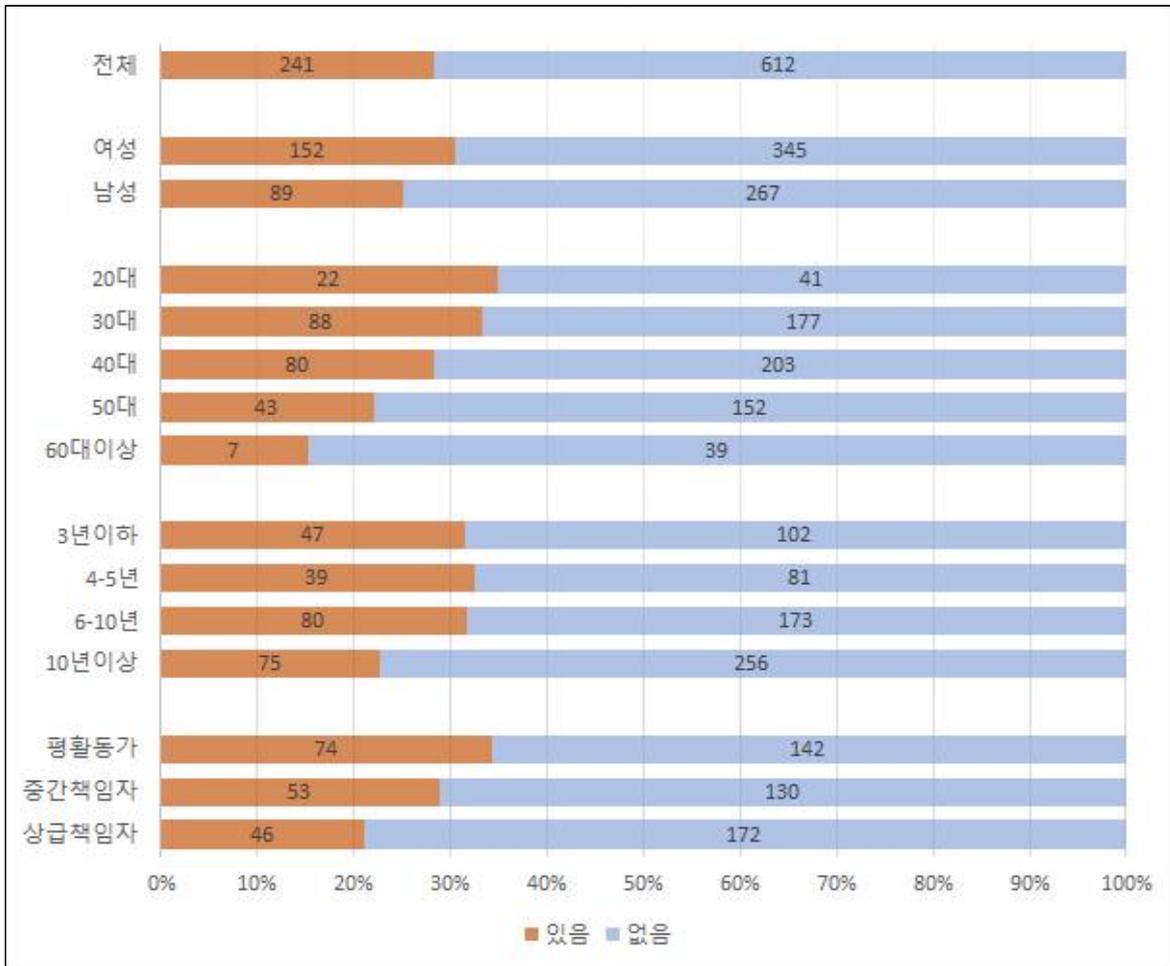
구분	공익활동가 조사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서울)
전체	55.1%	29.1%	27.7%
20대	69.8%	37.9%	29.6%
30대	61.9%	36.0%	32.7%
40대	53.7%	27.5%	29.9%
50대	48.7%	26.5%	23.8%
60대 이상	30.4%	20.9%	18.35

주: 1) 스트레스 인지율 :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

2) 60대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값은 60-69세의 값.

○ 절망감(우울감)

- 전체 활동가 중 241명(28.3%)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연령별(p<0.05), 경력별(p<0.05), 직급별(p<0.01)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공식기관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61명(25.3%) 였음.



[그림 11] 활동가의 특성별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비교

○ 일반인구집단과 우울감 경험률 비교

- 공익활동가의 우울감 경험률은 28.3%로 국민건강영양조사 11.6%, 지역사회건강조사(서울) 5.1%보다 2~4배 높음 (단, 노동인구집단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 주의)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우울감이 낮아지다가 다시 50대부터 올라가는 U자형의 경향성이 나타난 반면에, 공익활동가 조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올라가는 다른 패턴을 보임.

<표 19> 공익활동가와 일반인구집단의 우울감 경험률 비교

구분	공익활동가 조사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서울)
전체	28.3%	11.6%	5.1%
20대	34.9%	13.5%	4.7%
30대	33.2%	9.1%	4.6%
40대	28.3%	7.8%	4.8%
50대	22.1%	11.0%	4.8%
60대 이상	15.2%	14.7%	5.6%

- 주: 1) 우울감 경험률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            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2) 60대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값은 60-69세의 값.

## 5) 소결

- 공익활동가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일반국민보다 높은 편이지만, 노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 집단과 유사하며, 일반적 경향성과 달리 낮은 연령군에서 더 낮은 건강수준을 보였음.
- 만성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함.
- 평균 수면시간은 성별, 연령별 차이는 없고, 평 활동가의 수면시간이 상급책임자보다 많은 반면에, 수면의 질은 여성과 2-30대, 평 활동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5.1%로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7년)의 29.1%, 지역사회건강조사(2018년, 서울) 27.7%보다 약 2배 높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이 느끼고,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2-30대의 경우 전문가 상담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음
- 공익활동가의 우울감 경험률은 28.3%로 국민건강영양조사 11.6%, 지역사회건강조사(서울) 5.1%보다 2~4배 높음.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낮은 연령, 평 활동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만성질환은 높은 연령대의 활동가 그룹, 정신적 부담은 여성과 2-30대와 평 활동가 그룹에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4. 공익활동 만족과 전망

##### 1) 활동만족도

###### ○ 임금/소득, 활동 안정성, 활동의 내용

- 임금/소득의 만족도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활동 안정성은 경력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경력자가 가장 높았고, 4-5년차가 가장 낮았으며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 보임.
- 활동의 내용은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보였음. 경력에서는 10년이상 경력자와 5년이하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직급에서도 평 활동가보다 상급책임자가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음.

〈표 20〉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1)

구분		(1) 임금/소득		(2) 활동 안정성		(3) 활동의 내용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2.61		3.10		3.76	
성별	여성	2.62	0.788	3.10	0.906	3.70	<0.05
	남성	2.60		3.11		3.83	
나이	20대	2.54	0.394	3.00	0.686	3.68	<0.01
	30대	2.58		3.07		3.62†	
	40대	2.70		3.10		3.76	
	50대	2.61		3.16		3.94†	
	60대 이상	2.44		3.22		3.89	
경력	3년 이하	2.46	0.064	2.98	<0.01	3.57†	<0.001
	4-5년	2.55		2.92†		3.56‡	
	6-10년	2.61		3.08		3.74	
	10년 이상	2.71		3.24†		3.93†‡	
직급	평활동가	2.55	0.05	3.11	0.746	3.50†	<0.001
	중간책임자	2.78		3.18		3.73	
	상급책임자	2.71		3.13		3.88†	

주: 1) 점수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2) 사후분석에서 †-†,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후검정은 Bonferroni's method (유의수준=5%/검정의 횟수) 적용

○ 업무량, 일-생활균형, 개인 발전가능성

-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8로 가장 낮았지만 연령대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경력별로는 6-10년차가 2.92로 가장 낮았으며 10년 이상은 3.24로 가장 높았음.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일-생활균형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연령, 경력, 직급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업무량에서와 유사하게 4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임.
-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경력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급별 차이는 나타났고, 평 활동가와 상급책임자간 만족도 차이는 경계범위 내에서 유의미했음.

<표 21>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2)

구분		(4) 업무량		(5) 일-생활균형		(6) 개인 발전가능성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07		2.86		3.33	
성별	여성	2.95	<0.001	2.78	<0.05	3.29	0.174
	남성	3.23		2.96		3.38	
나이	20대	3.03	<0.05	2.87	0.052	3.27	0.468
	30대	3.02		2.85		3.25	
	40대	2.98		2.78		3.36	
	50대	3.19		2.87		3.39	
	60대 이상	3.46		3.30		3.46	
경력	3년 이하	3.00	<0.01	2.82	0.819	3.31	0.509
	4-5년	3.00		2.87		3.23	
	6-10년	2.92†		2.82		3.32	
	10년 이상	3.24†		2.90		3.38	
직급	평활동가	2.97	0.09	2.87	0.827	3.13	<0.05
	중간책임자	2.98		2.83		3.28	
	상급책임자	3.18		2.81		3.36	

주: 1) 점수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2) 사후분석에서 †-†,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후검정은 Bonferroni's method (유의수준=5%/검정의 횟수) 적용

○ 의사소통, 업무공정성, 복리후생

- 의사소통에서 만족도는 성별 차이는 없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경력별로는 6-10년차 활동가가 가장 낮았으며 10년 이상 활동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직급 간에도 차이를 보였으며 평 활동가와 상급 책임자간 만족도는 경계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음.
- 업무공정성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정성 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29로 가장 낮았고, 경력별로는 4-5년차가 가장 낮았고 10년차 이상이 가장 높았음. 직급별로는 평 활동가와 상급책임자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복리후생에서는 다른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직급별로 평활동가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상급책임자가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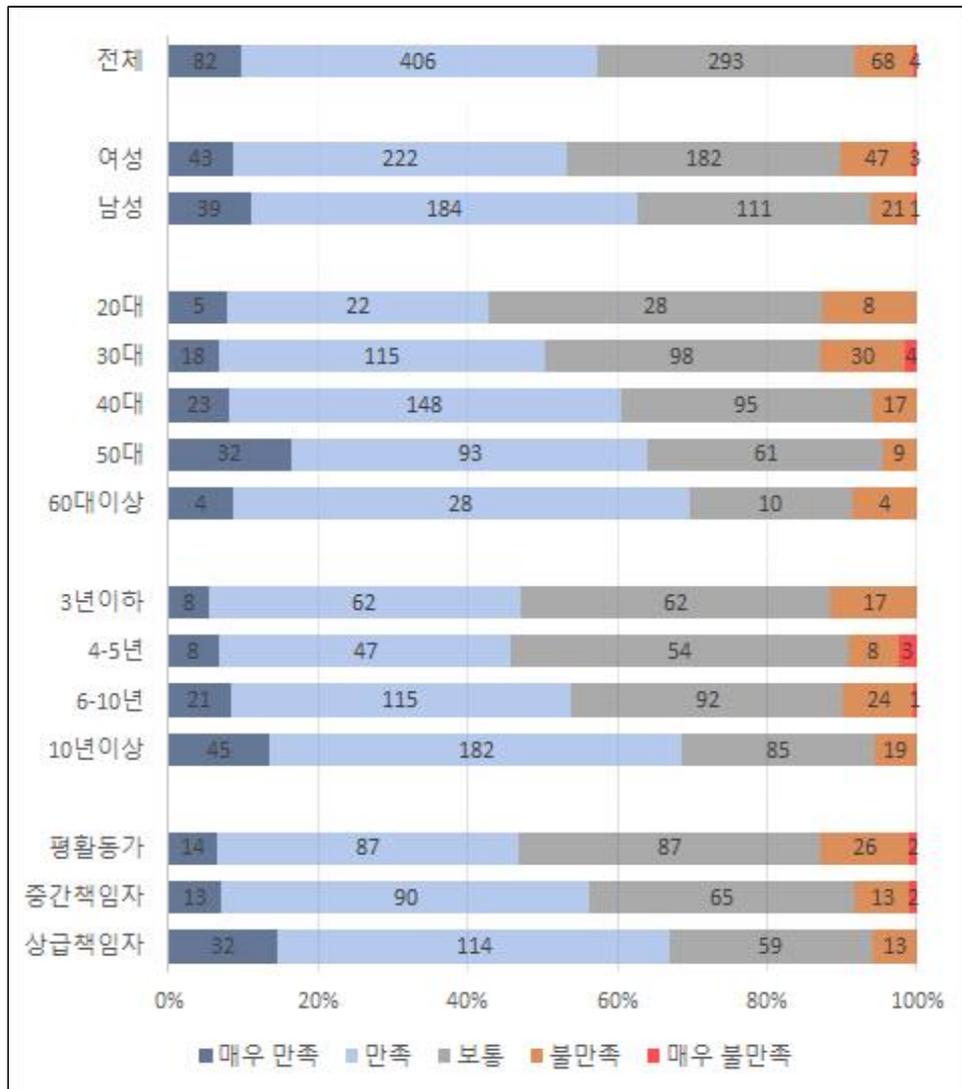
〈표 22〉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3)

구분		(7)의사소통		(8) 업무 공정성		(9) 복리후생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49		3.42		2.79	
성별	여성	3.46	0.311	<b>3.34</b>	<0.01	2.83	0.250
	남성	3.53		3.54		2.74	
나이	20대	3.43	<0.05	3.36	<0.05	2.97	0.062
	30대	<b>3.36†</b>		<b>3.29</b>		2.88	
	40대	3.50		3.45		2.80	
	50대	3.64†		3.55		2.62	
	60대 이상	6.36		3.61		2.64	
경력	3년 이하	3.43	<0.001	3.40	<0.01	2.88	0.247
	4-5년	3.4		<b>3.15†</b>		2.66	
	<b>6-10년</b>	<b>3.36†</b>		3.37		2.86	
	10년 이상	3.64†		3.56†		2.75	
직급	평활동가	3.35	<0.05	<b>3.23†</b>	0.001	2.93†	<0.001
	중간책임자	3.38		3.30		2.88‡	
	상급책임자	3.57		3.56†		<b>2.56†‡</b>	

주: 1) 점수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2) 사후분석에서 †-†,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후검정은 Bonferroni's method (유의수준=5%/검정의 횟수) 적용

- 공익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며, 20대와 30대가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며, 10년 이상 경력자가 그 아래 경력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직급별로도 상급책임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 12] 활동가의 특성별 공익활동 전반적 만족도

## 2)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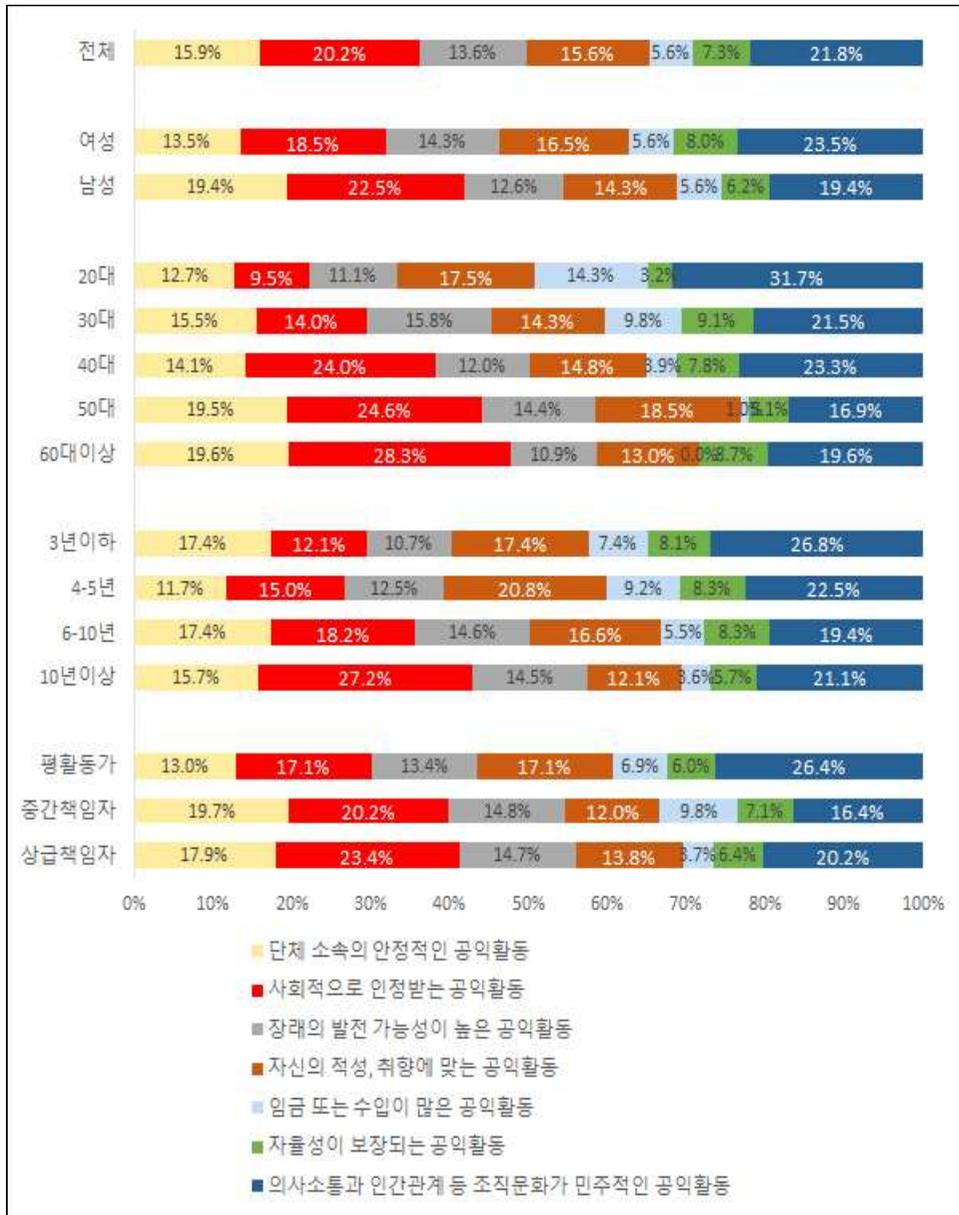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조직문화의 민주성을 선택한 사람이 186명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활동(20.2%), 단체소속의 안정성 136명(15.9%), 자신의 적성 및 취향에 맞는 공익활동이 133명(15.6%) 이었음.
- 그룹별로 우선순위 조건이 달랐는데, 성별로는 여성은 조직문화>>사회적인정>>적성 순인 반면에 남성은 사회적 인정>>단체소속의 안정성==의사소통 순이었음.
-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타남. 20대는 ‘의사소통>>적성’, 30대는 ‘의사소통>>발전가능성’, 40대는 ‘사회적 인정>>의사소통’, 50대는 ‘사회적 인정>>단체 소속의 안정성’, 60대는 ‘사회적 인정>>안정성==의사소통’ 순이었음.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을,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인정 선택
- 경력별로는 3년차 이하는 ‘의사소통>>안정성==자신의 적성’ 순이었고, 10년차 이상은 ‘사회적 인정>>의사소통>>안정성’을 꼽음.
- 직급별로 보면, 평활동가는 ‘의사소통>>사회적 인정==자신의 적성’순이며, 중간책임자는 ‘사회적 인정>>안정성>>의사소통’, 상급책임자는 ‘사회적인정>>의사소통>>안정성’ 순이었음.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sup>3)</sup>했을 경우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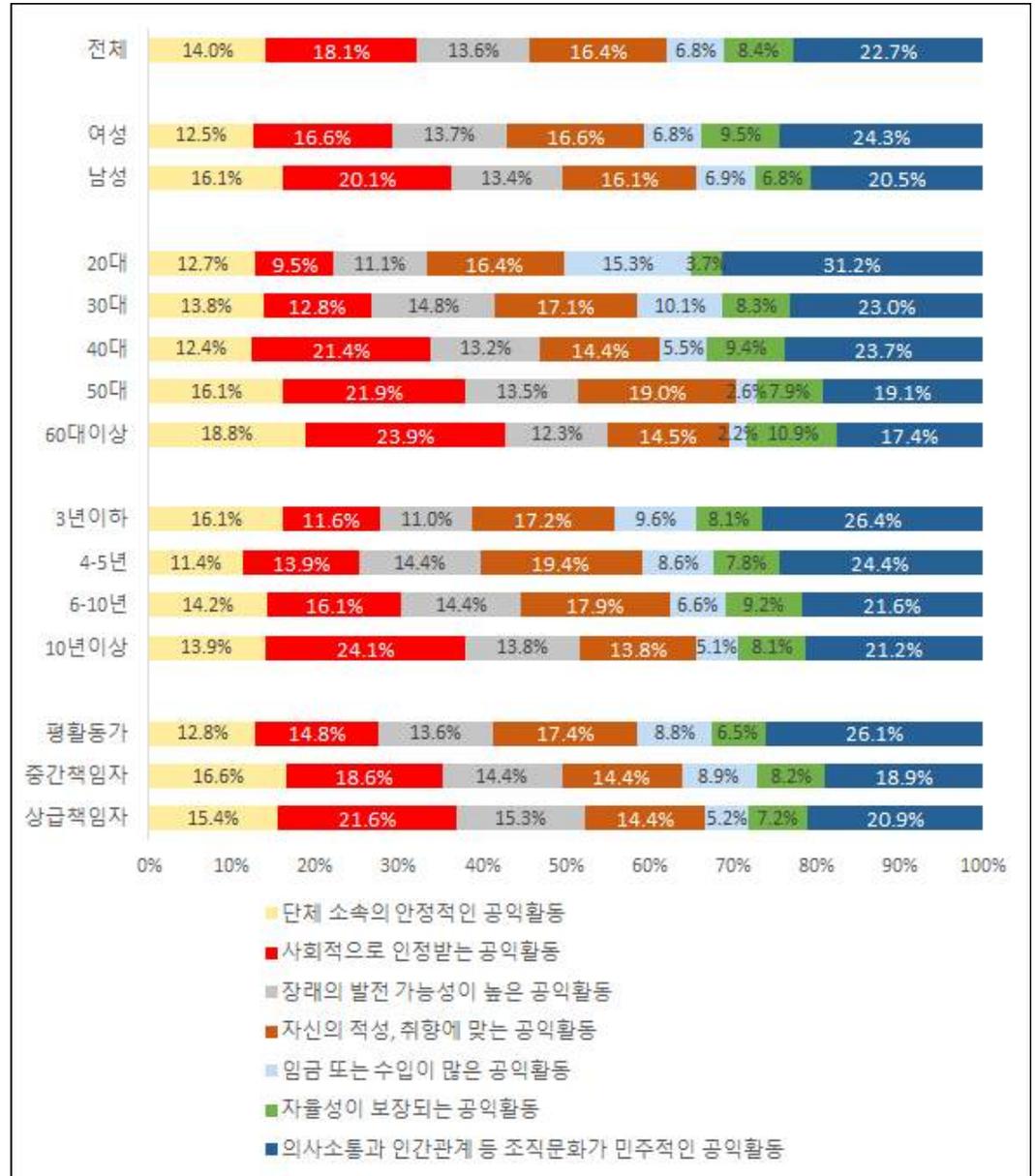
3) 1순위는 2점, 2순위는 1점으로 가중치를 주고 합산함

〈표 23〉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조건 우선순위 (1,2순위 합산)

구분		우선순위
전체		의사소통 > 사회적 인정 > 적성·취향
성별	여성	의사소통 >> 사회적 인정 ≒ 적성·취향
	남성	의사소통 ≒ 사회적 인정 > 적성·취향
연령	20대	의사소통 >> 적성·취향 > 임금
	30대	의사소통 > 적성·취향 > 장래 발전
	40대	의사소통 > 사회적 인정 > 적성·취향
	50대	사회적 인정 > 의사소통 ≒ 적성·취향
	60대 이상	사회적 인정 > 단체 안정성 > 의사소통
경력	3년 이하	의사소통 >> 적성·취향 > 단체 안정성
	4-5년	의사소통 >> 적성·취향 > 장래 발전
	6-10년	의사소통 >> 적성·취향 > 사회적 인정
	10년 이상	사회적 인정 > 의사소통 > 단체 안정성
직급	평활동가	의사소통 > 적성·취향 > 사회적 인정
	중간책임자	의사소통 ≒ 사회적 인정 > 단체 안정성
	상급책임자	사회적 인정 > 의사소통 > 단체 안정성



[그림 13]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1순위 조건



[그림 14]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 (1순위와 2순위 합산)

### 3) 공익활동의 전망

#### ○ 한국의 공익활동, 활동분야(주제) 전망

-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 30대가 한국의 공익활동에 대한 전망이 가장 낮았으며, 40대, 50대, 60대 이상과 비교하여 모두 유의하게 낮았음. 5-6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경력에서는 4-5년차가 가장 낮았고, 10년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직급별로는 평활동가의 전망이 중간책임자, 상급책임자보다 모두 유의하게 낮았음.
- 내가 활동하는 분야의 전망에서는 30대가 가장 전망이 낮았고, 50대가 가장 높았으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경력에서는 10년차 이상이 6-10년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표 24〉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공익활동 전망(1)

구분		(1) 한국의 공익활동 전망		(2) 내가 활동하는 분야(주제)의 공익활동 전망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2.86		3.29	
성별	여성	2.90	0.164	3.32	0.262
	남성	2.81		3.25	
나이	20대	2.67*	<0.001	3.30	<0.01
	30대	2.56†‡‡		3.13†	
	40대	2.94‡		3.35	
	50대	3.15‡*		3.45†	
	60대 이상	3.20†		3.37	
경력	3년 이하	2.72‡	<0.001	3.20	<0.01
	4-5년	2.63†		3.21	
	6-10년	2.83		3.20†	
	10년 이상	3.05†‡		3.44†	
직급	평활동가	2.63†‡	<0.001	3.15	0.079
	중간책임자	2.91‡		3.29	
	상급책임자	2.94†		3.35	

주: 1)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록 점수가 높음

2) 사후분석에서 †-†, ‡-‡, ‡-‡,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후검정은 Bonferroni's method(유의수준=5%/검정의 횟수) 적용

○ 단체, 개인의 공익활동 전망

- 내가 속한 단체의 전망에서 30대와 4-5년차 그룹에서 가장 전망이 낮았으며 4-50대와 10년차 이상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내 개인의 공익활동 전망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전망도 낮았으며, 직급에서는 평활동가가 가장 낮았음.

〈표 25〉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공익활동 전망(1)

구분		(3) 내가 속한 단체의 공익활동은 전망		(4) 내 개인의 공익활동은 전망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17		3.13	
성별	여성	3.17	0.986	3.10	0.250
	남성	3.17		3.17	
나이	20대	3.14	<0.001	2.89	<0.001
	30대	2.96†‡		3.00†	
	40대	3.24‡		3.16	
	50대	3.34†		3.28†	
	60대 이상	3.39		3.44	
경력	3년 이하	3.12	<0.001	3.01	<0.01
	4-5년	2.95†		3.01	
	6-10년	3.12		3.09	
	10년 이상	3.32†		3.26	
직급	평활동가	3.02	<0.05	2.95†	<0.01
	중간책임자	3.16		3.05	
	상급책임자	3.25		3.24†	

주: 1)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점수가 높음

2) 사후분석에서 †-†,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사후검정은 Bonferroni's method (유의수준=5%/검정의 횟수) 적용

○ 공익활동 후회 경험

- 공익활동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많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2%에 불과하며, 거의 없는 편이 50.2%로 대체로 공익활동에 대한 선택에 크게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공익활동 후회 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단히 많다	70	8.2	16	1.9
많은 편이다			54	6.3
조금 있는 편이다	783	91.8	355	41.6
거의 없는 편이다			428	50.2

- 후회한 이유는 생활의 불안정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장래 발전 가능성, 적음 임금 순으로 나타남

〈표 27〉 공익활동 후회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이 불안정해서	21	30.0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5	7.1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14	20.0
내 적성이나 취향에 맞지 않아서	2	2.9
임금 또는 수입이 적어서	14	20.0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9	12.9
기타	5	7.1

#### 4) 소결

- 전체적으로 공익활동가들은 임금/소득, 복리후생, 일-생활 균형 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활동의 내용, 의사소통, 업무 공정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보다 활동의 내용, 업무량, 일-생활균형, 업무 공정성에서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연령별로 30대가 낮았으며, 경력 4-5년차는 활동 안정성, 활동 내용, 업무 공정성에서, 6-10년차는 업무량, 의사소통에서 가장 만족도 낮았음. 직급별로는 복리후생에서만 평 활동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활동내용, 개인 발전가능성에서 평 활동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으로 전체 응답자는 의사소통, 사회적 인정, 적성·취향 순이었음. 20-30대, 10년차 이하, 평 활동가 그룹에서는 의사소통과 적성·취향의 우선순위가 높았고, 상급책임자, 50대는 사회적 인정, 의사소통을 보다 강조, 40대와 중간책임자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인정을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꼽음.
- 공익활동의 전만에서 30대는 한국의 공익활동 전망, 단체의 전망, 내 분야, 내 개인의 전망까지 모두 가장 낮았으며, 4-5년차의 경우 한국의 공익활동 전망, 단체의 전망에서 가장 낮았음.

- 정리해 보면, 앞으로 공익활동의 주요 주축이 될 30대와 4-5년차 내외 그룹이 활동의 만족도나 미래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그룹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임, 또한, 이들 그룹의 공익 활동의 조건도 50대 이상의 상급책임자 그룹보다 의사소통, 적성·취향을 더 강조하고 있어 조직문화와 활동의제 선정, 업무 배치 등에 있어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 5.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공익활동가 기본 소득 도입과 정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개선이 가장 많은 비율로 응답하였음.
- 공익활동가 공식 직업군 분류는 35세이하, 사회경제적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고, 시민공제회법 제정은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임.

〈표 28〉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견해 차이

(단위: %, 빈도)

구분		공익활동가 공식 직업군 분류	정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개선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자산화	시민공제회법 제정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도입	사례수
전체		15.1	31.5	15.5	4.9	32.9	733
성별	남성	13.8	27.5	18.8	6.7	33.2	356
	여성	16.1	34.4	13.1	3.6	32.8	497
연령	35세 이하	20.3	31.0	13.2	2.9	32.6	242
	36~49세	14.0	29.8	18.3	5.5	32.3	399
	50세 이상	10.9	35.6	12.8	6.2	34.6	211
직급	평활동가(간사)	18.1	31.9	9.7	4.6	35.7	216
	팀장 및 부장(중간책임자)	19.7	29.0	18.6	7.1	25.7	183
	사무국(처)장 및 사무총장	9.6	36.7	15.6	4.6	33.5	218
	기타	17.3	29.3	14.7	4.0	34.7	75
	직급 구분 없음	12.2	17.1	14.6	4.9	51.2	41
조직형태	임의단체	14.4	23.5	16.3	7.8	37.9	153
	비영리법인	15.5	34.0	13.8	4.0	32.6	470
	사회적경제조직	21.2	33.3	6.1	3.0	36.4	33
	중간지원조직	7.9	42.1	15.8	13.2	21.1	38
	기타	23.1	20.5	20.5	2.6	33.3	39

주: 제시된 값은 %로 행의 합이 100%임.

## 6. 나가며

- 공익활동가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일반국민보다 높은 편이지만, 노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 집단과 유사했음.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 있어서도 일반인구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음. 공익활동가는 일반인구집단과 달리 20~30대처럼 연령이 낮은 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지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20-30대 활동가는 업무 만족도, 공익활동의 전망 등에 있어 다른 선배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건강수준처럼 일반인구집단과 경향성이 다른지 본 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함.
- 해석에 제한점이 있겠지만, 향후 5~10년의 미래에서 이들이 공익활동의 주요 주축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난 현상을 보다 관심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익활동의 조건에서 이들 세대가 강조하는 의사소통, 개인의 적성과 취향의 존중은 향후 문제 접근에 있어 주요한 방향성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본 원고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관심 있게 살펴볼 문제를 탐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 등에는 매우 한계가 큰 자료임을 밝혀둠.
- 아울러, 공익활동가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근무환경, 활동의 지속성 관련 이슈, 건강 등 활동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를 다른 직업군과 비교를 통해 개선과제를 찾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식했듯이 공익활동가의 규모, 명부(등록체계) 등 매우 기초적인 자료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추진되길 기대함.

##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 (20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2008-2018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제3권 부록1.

유혜림, 2018,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pp.71~102.

이승렬, 2007,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실증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Last J. 1995, A Dictionary of Epidemiology. 3rd ed.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 발표2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본  
공익활동가의 현실

---



#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본 공익활동가의 현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이 글은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이하 공익활동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전체 성인 또는 임금근로자 대상의 국가통계 결과와 비교해서 공익활동가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는 이러한 비교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기존 통계조사 문항과 결과를 활용

### (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 1998년에 시작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Income Panel Study: KLIPS)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5,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사회생활 등에 관해 매년 실시하는 추적조사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과 복지후생제도, 업무 만족도와 전망에 관한 항목을 가져왔고, 최신 결과인 20차 조사(2017년)를 비교함
- 20차 조사의 개인용 자료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사용해서 사례 수가 전체 표본 수와 다르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2) 지역사회건강조사(CHS)

- 2008년에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Community Health Survey: CHS)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약 23만 명을 조사하는 법정조사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수면 및 정신건강, 만성질환 유병여부에 관한 항목을 가져왔고, 최신 결과인 2017년 자료와 비교함
- 2017년 원시자료의 전체 응답자는 228,381명으로,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이 있는 144,095명을 비교군으로 선정(학생, 주부, 무직 등 제외)

-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항별로 ‘응답 거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

### (3) 기타 소득 관련 국가통계

- 이 외에도 실질소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다른 국가통계를 일부 활용
- 가구균등화소득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 도시근로자 가구 결과와 비교
- 소득대비임대료비율(Rent Income Ratio: RIR)은 주거비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중 전국과 수도권 평균값과 비교

## 2. 공익활동가의 건강

### (1) 주관적 건강 수준

- 주관적 건강 수준은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로, 한국노동패널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여러 설문조사에서 활용 중
- 주관적 건강수준을 5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는 3.2점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보다 0.5점,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다는 0.1점 낮음
-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6.4% 적은 반면에,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5%, 17.2% 많음
- 전국 성인에 비해서도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9.7% 적은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8.9% 많음

<표 1-1> 주관적 건강 수준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구분	아주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다	전체 사례 수	점수 (5점 만점)
공익활동가	5.3	37.1	35.1	20.8	1.9	853	3.2
전체 임금근로자 (KLIPS)	4.1	63.5	28.6	3.6	0.2	19,550,929	3.7
전국 성인 (CHS)	6.3	35.2	44.8	12.0	1.8	144,087	3.3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도록 역부호화 하였음

2) 전국 성인(CHS)은 응답거부 1명, 모름 7명 제외

(2) 또래 보통사람과 비교했을 때 건강 수준

- 또래의 보통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는 3.2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3.7점)에 비해 0.4점 낮음
- ‘보통이다’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1%, 17.2% 낮음

<표 1-2> 보통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주관적 건강 수준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구분	아주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다	전체 사례 수	점수 (5점 만점)
공익활동가	3.3	31.9	42.3	20.4	2.1	853	3.1
전체 임금근로자 (KLIPS)	2.9	44.4	49.4	3.2	0.1	19,552,457	3.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도록 역부호화하였음.

(3) 만성질환 유병 여부

-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등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유병)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해 노동시간과 강도에 민감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에서는 순환기계, 내분비계, 근골격계, 호흡기계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을 적도록 질문
- 공익활동가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전국 성인보다 근골격계만 7.4%가 많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낮거나 비슷함
- 근골격계 질환은 공익활동가(20대 이상)와 전국 성인(만 50세 이상)의 분석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익활동가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임.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공익활동이 유병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
- 또한 공익활동가 설문조사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 20~30대 공익활동가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순환기계는 9.4%, 내분비계는 8.9%, 근골격계는 22.8%, 호흡기계는 16.7%임
- 만성질환이 노인성 질환으로도 불리었던 점을 고려하면, 40세 이하 공익활동가의 유병률은 심각한 문제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지원이 필요

<표 1-3> 만성질환 유병 여부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국 성인 비교

(단위: %)

구분		공익활동가		전국 성인(CHS)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순환기계	고혈압, 뇌졸중(중풍, 뇌경색),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기타 심장질환	17.7	82.3	26.9	73.1
내분비계	당뇨병, 갑상선 질환	9.3	90.7	10.4	89.6
근골격계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좌골신경통	18.6	81.4	11.2	88.8
호흡기계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결핵, 결핵	6.1	93.9	13.6	86.4

- 주: 1) 사례 수는 공익활동가가 853명, 전국 성인은 만성질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름  
 2)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세부 만성질환을 4개 유형에 따라 가능한 합산해서 비교했고,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장 빈도가 높은 만성질환의 유병률로 대체하였음.  
 3)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순환기계, 내분비계, 호흡기계 유병률은 보건분야 기준에 따라 만 30세 이상으로 분석  
 4)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근골격계 유병률은 보건분야 기준에 따라 만 50세 이상으로 분석

#### (4)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

-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적도록 질문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1순위는 ‘운동’(35.3%), 2순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21.9%), 3순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21.9%)가 가장 많음
-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1~3순위에서 ‘담배 또는 술 절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많고, ‘휴식 또는 수면’, ‘정기적 종합검진’은 적은 것이 특징
- 공익활동가가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건강유지에 시간과 돈을 쓰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결과

<표 1-4>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구분		운동	식사 조절	담배/ 술 절제	보약/ 영양 제	목욕 등	휴식/ 수면	정기 적 종합 검진	기타	활동 없음	전체 사례수
공익 활동가	1순위	35.3	12.5	9.4	9.0	1.6	6.5	3.1	0.7	21.9	853
	2순위	6.1	21.5	10.8	11.7	4.3	13.8	6.6	3.3	21.9	853
	3순위	8.1	8.0	10.3	9.7	3.4	18.1	9.4	11.1	21.9	853
전체 임금 근로 자 (KLIP S)	1순위	19.2	13.0	1.9	3.4	1.5	11.0	17.6	-	32.3	19,555,448
	2순위	9.1	9.0	4.0	7.3	5.8	20.6	18.4	22.0	3.7	13,238,001
	3순위	4.8	8.2	5.6	9.4	7.4	17.4	17.4	24.6	5.3	9,837,064

주: 전체(KLIPS)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 조사(2017년)의 개인용 자료에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로 전체 사례수가 표본의 수와 다르며,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5) 스트레스 수준과 상담 경험

- 평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많이 느끼는 편이면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공식기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은 총 55.1%로, 전국 성인(25.3%)에 비해 2배 이상 많음(29.8%p)
- 이러한 스트레스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비율도 공익활동가는 20.9%로 전국 성인(6.2%)에 비해 3배 이상 많음(14.7%p)

<표 1-5> 스트레스 수준과 전문가 상담 여부에 있어서 공익활동가와 전국 성인 비교

(단위: %, 빈도)

구분	평소 스트레스 수준				사례 수	전문가 상담 경험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		있다	없다	사례 수
공익활동가	10.9	44.2	41.9	3.0	853	20.9	79.1	470
	55.1		44.9					
전국 성인 (CHS)	3.2	22.1	55.5	19.2	144,065	6.2	93.8	36,388
	25.3		74.7					

주: 1)전국 성인(CHS)의 평소 스트레스 수준은 응답거부 1명, 모름 29명 제외

2) 전국 성인(CHHS)의 전문가 상담 경험은 모름 1명 제외

(6) 우울 수준과 상담 경험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료기관, 전문 상담기관, 보건소 등 공식기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3%로, 전국 성인(4.8%)에 비해 5배 이상 많음(23.5%p)
- 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비율도 공익활동가는 25.3%로 전국 성인(15.9%)에 비해 9.6%p 많음

<표 1-6> 우울 수준과 전문가 상담 여부에 있어서 공익활동가와 전국 성인 비교

(단위: %, 빈도)

구분	우울 수준			전문가 상담 경험		
	있다	없다	사례 수	있다	없다	사례 수
공익활동가	28.3	71.7	853	25.3	74.7	241
전국 성인 (CHHS)	4.8	95.2	144,071	15.9	84.1	6,948

주: 전국 성인(CHHS)의 우울 수준은 응답거부 1명, 모름 23명 제외

### 3. 공익활동가의 소득과 복지제도

#### (1) 월평균 임금

-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임금(기본급과 수당), 강의나 회의 등 외부활동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총액을 질문했고, 전체 임금근로자도 변수가 비슷하게 설정된 결과를 비교
- 공익활동가의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은 231.9만 원으로, 257.2만 원인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25.3만 원 적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 정도 차이

<표 2-1> 월평균임금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
공익활동가	231.9
전체 임금근로자(KLIPS)	257.2

주: 전체(KLIPS)는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 조사(2017년)의 개인용 자료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로 전체 사례수가 표본의 수와 다르며,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2) 사회보험 가입 여부

- 공익활동 단체 상근자 또는 반상근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질문
- 공익활동가는 모든 사회보험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가입률이 높음

<표 2-2>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사회보험	구분	가입	미가입	모른다	전체 사례수
(1) 국민연금	공익활동가	91.5	8.1	0.4	733
	전체(KLIPS)	64.9	35.1	0.1	19,555,448
(2) 국민건강보험	공익활동가	92.8	7.1	0.1	733
	전체(KLIPS)	76.9	23.0	0.0	19,555,448
(3) 고용보험	공익활동가	89.4	10.0	0.7	733
	전체(KLIPS)	74.2	25.7	0.1	17,808,741
(4) 산재보험	공익활동가	87.5	10.8	1.8	733
	전체(KLIPS)	75.0	24.8	0.2	19,555,448

### (3) 복리후생제도(I)

- 보통의 직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가급여와 복리후생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1)소속 단체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지, 2)제공한다면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 제공 여부를 비교한 결과, 공익활동가가 속한 단체는 복리후생제도(I) 중 생리휴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일반 직장(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많이 제공
- 본인 혜택 여부를 비교한 결과, 생리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공익활동가가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적용률이 1.3%~7.2% 정도 높음
- 복리후생제도(I)는 법정퇴직금을 제외하면 각종 휴가 및 휴직으로,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적’ 복리후생을 더 많이, 다양하게 제공 받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
- 생리휴가 제공률과 육아휴직 적용률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이유는 추가 확인이 필요

<표 2-3> 복리후생제도(I)의 직장 내 제공여부에 대한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복리후생 항목(I)	구분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전체 사례수
(1) 법정퇴직금	공익활동가	85.1	12.9	1.9	733
	전체(KLIPS)	75.7	23.7	0.6	19,541,967
(2) 유급휴가(정규, 연월차)	공익활동가	85.3	13.5	1.2	733
	전체(KLIPS)	26.3	69.7	4.0	19,541,967
(3) 생리휴가	공익활동가	54.3	34.2	11.5	733
	전체(KLIPS)	58.2	40.8	1.0	19,541,967
(4) 산전후휴가	공익활동가	73.3	14.6	12.1	733
	전체(KLIPS)	13.9	80.0	6.1	19,541,967
(5) 병가(상병휴가)	공익활동가	83.5	10.9	5.6	733
	전체(KLIPS)	34.7	59.8	5.5	19,541,967
(6) 육아휴직	공익활동가	72.0	15.7	12.3	733
	전체(KLIPS)	45.1	49.7	5.1	19,541,967
(7) 대체휴가	공익활동가	82.8	13.2	4.0	733
	전체(KLIPS)	34.4	58.8	6.8	19,541,967
(8) 학업휴직(유급/무급)	공익활동가	27.8	49.3	22.9	733
	전체(KLIPS)	5.7	84.6	9.6	19,541,967
(9) 유급 안식년(월)	공익활동가	44.5	45.2	10.4	733
	전체(KLIPS)	10.0	82.5	7.5	19,541,967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공익활동가	86.4	7.4	6.3	733
	전체(KLIPS)	56.6	40.6	2.8	19,541,967

<표 2-4> 복리후생제도(Ⅰ)의 본인 혜택 여부에 대한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복리후생 항목(Ⅰ)	구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전체 사례수
(1) 법정퇴직금	공익활동가	98.2	1.8	624
	전체(KLIPS)	96.9	3.1	14,799,186
(2) 유급휴가(정규, 연월차)	공익활동가	95.8	4.2	625
	전체(KLIPS)	94.0	6.0	5,137,053
(3) 생리휴가 <sup>2)</sup>	공익활동가	81.9	18.1	398
	전체(KLIPS)	88.5	11.5	1,124,270
(4) 산전후휴가 <sup>2)</sup>	공익활동가	82.5	17.5	537
	전체(KLIPS)	80.0	20.0	1,832,141
(5) 병가(상병휴가)	공익활동가	96.1	3.9	612
	전체(KLIPS)	80.0	20.0	6,781,088
(6) 육아휴직 <sup>2)</sup>	공익활동가	84.7	15.3	528
	전체(KLIPS)	91.6	8.4	8,816,826
(7) 대체휴가	공익활동가	96.7	3.3	607
	전체(KLIPS)	81.0	19.0	6,717,156
(8) 학업휴직(유급/무급)	공익활동가	83.8	16.2	204
	전체(KLIPS)	80.2	19.8	1,121,571
(9) 유급 안식년(월)	공익활동가	92.3	7.7	326
	전체(KLIPS)	85.1	14.9	1,958,858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공익활동가	98.7	1.3	633
	전체(KLIPS)	93.2	6.1	11,053,554

주: 생리휴가는 '여성', '산전후휴가'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3) 복리후생제도(Ⅱ)

- 제공 여부를 비교한 결과, 공익활동가가 속한 단체는 일반 직장에 비해 복리후생제도(Ⅱ) 중 식사비용보조, 학비보조, 주택마련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제공률이 낮은 반면에 경조사지원, 휴양비용지원, 보육비지원은 제공률이 높음
- 본인 혜택 여부를 비교한 결과,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식사비용보조, 주택마련지원, 경조사지원은 적용률이 높은 반면에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휴양비용지원, 보육비지원은 적용률이 낮음
- 제공률과 적용률을 종합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공익활동가에게 가장 열악한 항목은 학비보조,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이고, 가장 양호한 항목은 경조사지

원

- 복리후생제도(II)는 비용 보조 또는 용자로 일종의 ‘금전적’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음. 이 중에서도 식사비용, 학비, 주택마련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육비 등은 지속적/장기적/고액 지원에 해당한다면, 경조사비, 휴가비는 일시적/단기적/소액 지원에 해당
- 따라서 공익활동가는 금전적 복리후생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적은 항목은 더 많이, 재정 부담이 큰 항목은 더 적게 제공 받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

<표 2-5> 복리후생제도(II)의 직장 내 제공 여부에 대한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복리후생 항목(II)	구분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전체 사례수
(1) 식사비용보조	공익활동가	60.4	38.2	1.4	733
	전체(KLIPS)	67.5	31.6	0.9	19,541,967
(2) 학비보조	공익활동가	8.2	85.0	6.8	733
	전체(KLIPS)	18.6	78.2	3.2	19,541,967
(3) 주택마련지원 (용자 등)	공익활동가	1.4	93.6	5.0	733
	전체(KLIPS)	6.7	89.7	3.6	19,541,967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공익활동가	6.0	87.0	7.0	733
	전체(KLIPS)	6.4	89.6	4.1	19,541,967
(5) 경조사지원	공익활동가	50.3	43.0	6.7	733
	전체(KLIPS)	23.5	72.9	3.6	19,541,967
(6) 휴양(휴가)비용지원	공익활동가	24.0	71.5	4.5	733
	전체(KLIPS)	12.5	84.4	3.1	19,541,967
(7) 보육비지원	공익활동가	10.1	81.6	8.3	733
	전체(KLIPS)	7.3	88.5	4.3	19,535,755

<표 2-6> 복리후생제도(Ⅱ)의 본인 혜택여부에 대한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복리후생 항목(Ⅱ)	구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전체 사례수
(1) 식사비용보조	공익활동가	97.1	2.9	443
	전체(KLIPS)	98.5	1.5	13,190,293
(2) 학비보조	공익활동가	68.3	31.7	60
	전체(KLIPS)	87.3	12.7	3,635,491
(3) 주택마련지원 (융자 등)	공익활동가	90.0	10.0	10
	전체(KLIPS)	86.2	13.8	1,313,063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공익활동가	81.8	18.2	44
	전체(KLIPS)	89.5	10.5	1,244,976
(5) 경조사지원	공익활동가	96.7	3.3	369
	전체(KLIPS)	95.3	4.7	4,585,437
(6) 휴양(휴가)비용지원	공익활동가	90.9	9.1	176
	전체(KLIPS)	94.7	5.3	2,441,214
(7) 보육비지원	공익활동가	77.0	23.0	74
	전체(KLIPS)	82.0	18.0	1,416,598

주: 경조사 휴가의 경우 전체(KLIPS)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있으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4. 공익활동 만족도

##### (1) 직무만족도

- 공익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다양한 항목으로 질문하고, 단체 상근자 또는 반상근자에게는 업무/직급 배치의 공정성, 복리후생을 추가로 질문
- 항목별 점수(5점 만점)를 비교한 결과,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활동내용, 업무 공정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서 0.1~0.3점 정도 높고, 나머지는 모두 낮음
- 차이가 미미한 항목을 제외하면, 공익활동가가 두드러지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활동내용(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반해 임금(2.6점), 복리후생(2.8점), 일-생활 균형(2.9점)은 평균인 3점 이하인 동시에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0.4~0.5점이 낮음
- 또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적고, 양극

단은 많은 경향이 있어, 공익활동가 집단 내에서 만족도의 양극화가 있는 것으로 추측

<표 3-1> 직무만족도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활동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전체 사례수	점수 (5점 만점)	
모두 해당	(1) 임금/소득	공익활동가	15.2	29.4	36.0	17.6	1.8	853	2.6
		전체 (KLIPS)	1.8	20.0	56.0	21.5	0.6	26,086,964	3.0
	(2) 활동 안정성	공익활동가	5.6	21.1	36.6	30.8	5.9	853	3.1
		전체 (KLIPS)	0.6	7.4	46.2	43.8	2.0	26,089,414	3.4
	(3) 활동의 내용	공익활동가	0.9	7.9	24.2	48.8	18.3	853	3.8
		전체 (KLIPS)	0.3	4.5	43.9	49.5	1.8	26,086,964	3.5
	(4) 활동시간(업무량)	공익활동가	8.9	21.3	31.3	31.1	7.4	853	3.1
		전체 (KLIPS)	0.3	6.4	48.9	43.4	1.1	26,088,491	3.4
	(5) 일-생활 균형	공익활동가	11.3	26.4	33.4	23.3	5.6	853	2.9
		전체 (KLIPS)	0.7	9.7	44.1	44.4	1.1	26,086,964	3.4
	(6) 개인 발전가능성	공익활동가	3.8	16.8	32.0	37.9	9.6	853	3.3
		전체 (KLIPS)	0.4	7.2	56.4	35.1	0.9	26,086,964	3.3
	(7) 의사소통/인간관계	공익활동가	2.6	10.2	33.2	43.8	10.2	853	3.5
		전체 (KLIPS)	0.3	3.1	52.5	43.1	1.0	26,086,964	3.4
A4의 ① 응답자만	(8) 업무 공정성	공익활동가	4.8	9.5	32.9	44.7	8.0	733	3.4
		전체 (KLIPS)	0.5	6.6	67.7	24.8	0.4	19,518,617	3.2
	(9) 복리후생	공익활동가	10.1	29.5	35.3	21.3	3.8	733	2.8
		전체 (KLIPS)	2.7	17.9	54.4	24.5	0.5	19,518,617	3.0

(2) 전반적인 만족도

- 공익활동가의 전반적인 활동 만족도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비해 0.2점 높음
- 하지만 여기서도 항목별 만족도와 비슷하게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적은 반면

에 양극단은 많아 양극화가 있는 것으로 추측

<표 3-2>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에 있어 공익활동가와 전체 임금근로자 비교

(단위: %, 빈도)

활동 만족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전체 사례수	점수 (5점 만점)
공익활동가	9.6	47.6	34.4	8.0	0.5	853	3.6
전체 임금근로자 (KLIPS)	0.7	42.5	52.7	4.0	0.2	26,088,491	3.4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도록 역부호화하였음.

## 5. 공익활동가의 소득 대비 생계의 어려움

### (1) 가구 월평균 소득

- 공익활동가의 가구균등화소득은 219.2만 원으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217.5만 원)보다 1.7만 원 많아 거의 비슷한 수준
- 공익활동가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약 25만 원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익활동가는 가구원 수가 적거나(1인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

<표 4-1>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단위: 만원)

구분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
월평균소득			357.3
가구균등화소득	공익활동가		219.2
	도시가계(2016년)	시장소득	217.5
		처분가능소득	204.9

주: 1) 가구균등화 소득: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OECD 방법)

2)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3) 처분가능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2) 소득대비임대료비율

- 공익활동가 응답자 중 월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은 20.6
- 주거 빈곤층 기준인 30보다는 낮지만,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의 전국 평균(+5.1p)은 물론 수도권 평균(+2.0p)보다도 높아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

<표 4-2> 소득대비임대료비율

(단위: 만원, %)

구분		월평균 소득(세전 기준)
월평균 임대료		44.3
소득대비임대료비율	공익활동가	20.6
	전국(2018)	15.5
	수도권(2018)	18.6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 = (월임대료 ÷ 월가구소득) × 100.

2) 소득대비임대료비율의 전국 및 수도권 자료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결과임.

6. 나가며

- 지금까지의 비교 결과를 동행의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간략한 시사점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전국 성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건강유지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기가 여의치 않음. 만성질환은 전국 성인과 비교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과 40세 이하 유병률이 높음. 건강증진은 당사자와 소속단체의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지만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건강유지 활동은 동행 차원에서 비용을 보조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특히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40세 이하 공익활동가의 만성질환 사전 예방에 집중해서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가는 전국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전문가 상담 경험도 전국 성인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0~80%에 달함. 가치 지향적이지만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은 낮고, 대

인 업무가 많은 공익활동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큼. 공익활동가의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 조사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

-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은 월 25만 원 정도 적지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음.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공익활동단체는 시간적 복리후생(휴가)과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전적 복리후생(수당)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임금을 높이는 사회운동과 정책제안을 하는 동시에, 개별 단체가 제공하기 힘든 재정부담이 큰 금전적 복리후생 항목(학비, 주택마련비 용자) 지원에 집중하면 역할 분담과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공익활동가의 활동 만족도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활동 내용과 전반적 만족도는 높지만 임금, 복리후생, 일-생활 균형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낮음. 임금과 복리후생은 앞서 제시한 지원방안으로 같음한다면, 동행은 공익활동가의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공익활동가는 만족도의 양극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경력, 직급,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는 지원방안을 개발하고 우선 지원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 공익활동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구균등화소득은 비슷한 수준이나 개인 월평균소득을 감안했을 때 가구원이 적거나 소득이 높은 다른 가구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월세 거주자인 공익활동가는 소득대비임대료비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편임. 동행은 사회주택 제공처럼 공익활동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원은 공익활동가 개인은 물론 가구의 지출을 줄여 가구 구성이나 소득 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가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몇 가지 분석 보완 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는 비교집단을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더 정교하게 설정하는 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공익활동가와 비슷하거나 또는 공익활동가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특정 직업군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면 좀 더 세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둘째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외에 다른 국가통계와 비교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번 설문조사의 건강 분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와도 비교가 가능한데, 이번 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다루지 못했으나 최종 보고서에

는 결과를 제시할 예정임. 이 밖에도 공익활동가의 현실을 보다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조사결과와 비교하는 시도가 이뤄지길 기대함

-

---

제언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활동가 이야기와 제언

---



#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토론문

정민석  
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의 의미

- 내가 아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다양한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들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라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저임금과 고단한 노동, 휴식 없는 삶은 활동가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소진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공익활동가의 몫이었습니다. 활동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책임만 부여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 동행의 출발은 공익활동가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롯이 ‘활동가’를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알아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 인권재단 사람은 2016년부터 약 2년 동안 약 7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동행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원을 종료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인권활동가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동행의 지원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혜택을 보는 활동가들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축하금을 받기도 하였고, 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종합건강검진 기회가 생겨 자기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 동행 활동은 필요할 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넘어 활동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 이번 조사는 공익활동가들의 삶을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53명(조사대상 중 32.1%의 응답율)이라는 적지 않은 공익활동가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히 공익활동가의 건강, 소득과 복지제도, 만족도 등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보다 살펴볼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공익활동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지속되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방해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알기 위한 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공익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가 얻는 이익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 요구해야 할 과제들이 보다 자세히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익활동가의 범위는 넓습니다. 활동하는 지역도, 활동하는 분야도, 설문응답자가 참여한 조직의 형태도 모두 다릅니다. 활동조건의 차이는 급여나 복지제도,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구조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속가능한 활동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이, 경력, 직급, 활동형태만이 아니라 조직의 형태를 변수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임의단체와 법인격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처한 조건이 다르고,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공익단체는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고, 때로 급여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본 조사에서 <공익활동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수준을 확인하는 것부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수면의 질이나 스트레스, 절망감을 확인하는 것 모두 동행이 향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활동가 스스로 자기 건강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9년 7월, 박종필 추모사업회(준) 주관으로 개최된 ‘사회운동활동가의 건강권을 묻다’ 포럼<sup>4)</sup>을 계기로 문제를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 성과가 지속적인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20-30대 활동가의 경우 전문가 상담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평 활동가일수록 절망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공익활동의 조건이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조사가 진행된다면,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단체의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비를 단순히 지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와 비교

- 인권재단사람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sup>5)</sup>와 함께 2019년 <지속가능한

4)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663&thread=04r01>

5)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2004년 출범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전환하면서 2017년 새롭게 시작한 인권운동의 연대모임이다. 전국인권활동가대회, 한국인권보고대회 등을 진행하며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함께 찾고, 활동가들의 교류와 연결을 촉진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0월 현재 49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이메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71개 단체, 12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20명의 인권활동가들을 만나 설문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동행 설문에서 <공익활동의 만족과 전망> 결과는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이별로, 경력별로,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직문화의 민주성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활동을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곧 비민주적인 조직문화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활동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서 공익단체 스스로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익활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활동만족도에서는 임금과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지만,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에 있어서는 높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공익활동 전망에 있어서는 30대, 4-5년 경력, 평 활동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공익활동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들이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125명) 중에 45명인 36.4%가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43명인 34.4%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테지만 활동에 대한 성취·만족감, 동료관계, 활동 전문성 및 사회적 인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비에 대한 만족도는 사무공간, 복지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표 1〉 인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조건 (2가지 항목 선택)

	빈도(명)	비율	총 응답자
<b>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b>	<b>45</b>	<b>36.0</b>	125 (100.0)
<b>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관계</b>	<b>43</b>	<b>34.4</b>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사회적 인정	37	29.6	
인권활동가로서 개개인의 성장	32	25.6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운영	30	24.0	
적절한 경제적 보상	29	23.2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21	16.8	
활동가들의 휴식보장	10	8.0	
책임있는 지위와 역할 부여	5	4.0	
기타	2	1.6	

- 반면 동행 설문조사에서 <공익활동을 후회한 경험>에 대해서는 50% 정도가 거의 없고,

8.2%는 많은 편, 41.6%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생활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발전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후회한 적이 많다고 응답했지만,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1.6%나 되어 후회하는 감정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에서는 5년 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은지, 지속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응답자의 76.0%가 지속하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12.8% 정도가 되어 ‘그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행 설문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불안정과 저임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장기간의 활동과 고강도 노동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만족감과 전망을 찾을 수 있는 단체로 이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표 2〉 5년 후에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은가

	빈도(명)	비율(%)
전혀 지속하고 싶지 않다	2	1.6
지속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12	9.6
그저 그렇다	16	12.8
<b>지속하고 싶은 편이다</b>	<b>66</b>	<b>52.8</b>
<b>꼭 지속하고 싶다</b>	<b>29</b>	<b>23.2</b>
합계	125	100.0

〈표 3〉 5년 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빈도(명)	비율(%)	총 응답자
<b>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때문에</b>	<b>11</b>	<b>36.7</b>	30(100.0)
기타	11	36.7	
노동시간이 길고 개인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10	33.3	
장기적으로 활동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9	30.0	
다른 활동영역에 흥미가 생겨서	8	26.7	
적성이 맞지 않아서	5	16.7	
일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5	16.7	
현재 하고 있는 인권운동에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4	13.3	
동료활동가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2	6.7	

〈표 4〉 5년 후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기타 의견

	빈도(명)
관련 단체 업무를 오래해서 쉬고 싶다	1
너무 힘들다. 고강도 노동. 삶을 계속 갈아 넣는 느낌	1
몸과 마음이 고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
무엇보다 이 단체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인 전망을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가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단체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1
여러 일을 해보고 싶다	1
오래해서	1
운동과 관련하여 꼭 활동가로서의 역할보다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1
육아를 병행하면서 야근이 불가능하고 활동성과가 떨어짐.	1
일로 인한 소진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	1
장기간의 활동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1
활동가로서 계속 살 자신이 없기도 하고(내 자신의 부족함), 나이가 들면서 좀 다르게 살아도 좋겠어서.	1
합계	11

- 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임금과 적절한 보상’보다 조직문화의 민주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활동,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만족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관계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활동을 후회하거나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활의 불안정과 저임금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4.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바란다.

- 인권재단사람, 동행 모두 공익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가 조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급여만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익단체 스스로 ‘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 조직문화를 점검해야 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해야 할 과제 또한 있습니다. 한 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활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비법인, 미등록 단체로 운영되고 있거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sup>6)</sup>에

6) 설문조사는 인권단체 설문과 인권활동가 설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표5>는 총 71개 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

서 확인한 것은 임의단체로 운영될 경우 단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활동가들이 겪는 불안정성은 다른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미등록단체 활동가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스스로 조합비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영역별 민간재단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5〉 단체의 법적성격에 따른 월평균 정기 후원금

	단체의 월평균 정기후원금					전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사단법인	1 20.0%	0 .0%	0 .0%	1 20.0%	3 60.0%	5 100.0%
비영리 민간단체	6 21.4%	5 17.9%	3 10.7%	6 21.4%	8 28.6%	28 100.0%
임의단체	14 46.7%	7 23.3%	2 6.7%	3 10.0%	4 13.3%	30 100.0%
합 계	21 33.3%	12 19.0%	5 7.9%	10 15.9%	15 23.8%	63 100.0%

-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합검진지원사업 외 마음 돌봄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익활동가라면 공통적으로 겪고 있을 저임금과 불안한 미래, 고된 노동과 휴식 없는 삶과 같은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세한’ 조직 구조에서 활동하며 인권침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있는 인권활동가의 경우 활동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 세 번째는 공익활동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행 설문에서 공익활동가들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고 주거비 부담이 높다고 조사되었고,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조사〉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이 주거비 지출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경제적 불안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설문 중에 정기후원금을 받는 63개 단체를 단체의 법적성격에 따라 구분한 결과입니다.

# 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이전엔 몇 몇의 친한 동료 활동가들과만 술자리 수다처럼 해왔던 삶과 활동에 대한 주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 친한 사람들과도 이야기 할 자리가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사례로만 드러나고, 유추할 수 있었던 활동가의 삶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보이는 것은 숫자인데, 그 뒤에 저나 제 동료가 보여 마음이 일렁거리기도 합니다. 제가 30대 / 여성 / 직책자 / 11년-15년의 사람이라 그런지, 해당 지표에 눈이 더 갔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감상(π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여성의 활동\_유리천장?

발제1\_〈표 1〉 응답자 일반 특성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계		853 (100%)	497 (100%)	356 (100%)
나이	20대	63 (7.4%)	49 (9.9%)	14 (3.9%)
	30대	265 (31.1%)	164 (33.1%)	101 (28.4%)
	40대	283 (33.2%)	162 (32.7%)	121 (34%)
	50대	195 (22.9%)	103 (20.8%)	92 (25.8%)
	60대 이상	46 (5.4%)	18 (3.6%)	28 (7.9%)
경력	1년 이하	55 (6.4%)	41 (8.2%)	14 (3.9%)
	2-3년	94 (11%)	65 (13.1%)	29 (8.1%)
	4-5년	120 (14.1%)	80 (16.1%)	40 (11.2%)
	6-10년	253 (29.7%)	<b>146 (29.4%)</b>	<b>107 (30.1%)</b>
	11-15년	139 (16.3%)	<b>79 (15.9%)</b>	<b>60 (16.9%)</b>
	16년 이상	192 (22.5%)	<b>86 (17.3%)</b>	<b>106 (29.8%)</b>
직급	평활동가	216 (29.5%)	157 (36%)	59 (19.9%)
	중간책임자	183 (25%)	109 (25%)	74 (24.9%)
	사무국·처·총장	218 (29.7%)	<b>100 (22.9%)</b>	<b>118 (39.7%)</b>
	기타	116 (15.8%)	70 (16.1%)	46 (15.5%)
활동형태	상근	696 (81.6%)	412 (82.9%)	284 (79.8%)
	반 상근	37 (4.3%)	24 (4.8%)	13 (3.7%)
	개인 활동	120 (14.1%)	61 (12.3%)	59 (16.6%)

- 사무국/처/총장 직책의 활동가를 살펴보면 여성은 100명, 남성은 118명임. 일반적으로 직책을 가지게 되는 6년차 이상 활동가들의 수를 보면 여성은 311명, 남성은 273명임. 여성의 경우 해당 연차 활동가의 32%가 국/처/총장의 직책을 가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 43%로 여성보다 직책을 맡는 경우가 10% 높음
- 활동가에게 직책이 성과와 성취의 결과는 결코 아니지만, 남성의 경우 책임자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상승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중간책임자급에서 꺾이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활동\_업무만족도

발제1\_〈표 13〉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2)

구분		(4) 업무량		(5) 일-생활균형		(6) 개인 발전가능성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07		2.86		3.33	
성별	여성	<b>2.95</b>	<0.001	2.78	<0.05	3.29	0.174
	남성	<b>3.23</b>		2.96		3.38	

발제1\_〈표 14〉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3)

구분		(7) 의사소통		(8) 업무 공정성		(9) 복리후생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49		3.42		2.79	
성별	여성	3.46	0.311	<b>3.34</b>	<0.01	2.83	0.250
	남성	3.53		<b>3.54</b>		2.74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업무공정성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특히 업무량 만족도는 격차가 큰 편
- 혹시 여성활동가의 업무 중에 측량하기 어려운 일, 그림자 노동인 것은 없을까?

## #청년의 활동\_전망

발제1\_〈표 13〉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2)

구분		(4) 업무량		(5) 일-생활균형		(6) 개인 발전가능성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3.07		2.86		3.33	
성별	여성	2.95	<0.001	2.78	<0.05	3.29	0.174
	남성	3.23		2.96		3.38	
나이	20대	3.03	<0.05	2.87	0.052	3.27	0.468
	30대	3.02		2.85		3.25	
	40대	2.98		2.78		3.36	
	50대	3.19		2.87		3.39	
	60대 이상	3.46		3.30		3.46	
경력	3년 이하	3.00	<0.01	2.82	0.819	3.31	0.509
	4-5년	3.00		2.87		3.23	
	6-10년	2.92+		2.82		3.32	
	10년 이상	3.24+		2.90		3.38	
직급	평활동가	2.97	0.09	2.87	0.827	3.13	<0.05
	중간책임자	2.98		2.83		3.28	
	상급책임자	3.18		2.81		3.36	

- 30대 미만/평활동가의 개인발전가능성이 낮음. 반면 10년차 이상 활동가/상급책임자의 개인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준임
- 개인발전가능성을 높이기까지의 3-6년간의 버틸 힘을 어떻게 만드는가
- 개인발전가능성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버틴 자에게 오는 선물 같은 것이어야 하나

발제1\_〈표 15,16〉 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공익활동 전망(1)

구분		(1) 한국의 공익활동 전망		(2) 내가 활동하는 분야(주제)의 공익활동 전망		(3) 내가 속한 단체의 공익활동은 전망		(4) 내 개인의 공익활동은 전망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만족도 (5점)	p-value
계		2.86		3.29		3.17		3.13	
성별	여성	2.90	0.164	3.32	0.262	3.17	0.986	3.10	0.250
	남성	2.81		3.25		3.17		3.17	
나이	20대	<b>2.67*</b>	<0.001	<b>3.30</b>	<0.01	<b>3.14</b>	<0.001	<b>2.89</b>	<0.001
	30대	<b>2.56+†‡</b>		<b>3.13+</b>		<b>2.96+†‡</b>		<b>3.00+</b>	
	40대	2.94‡		3.35		3.24‡		3.16	
	50대	3.15 ‡ *		3.45+		3.34+		3.28+	
	60대 이상	3.20+		3.37		3.39		3.44	
경력	3년 이하	<b>2.72‡</b>	<0.001	<b>3.20</b>	<0.01	<b>3.12</b>	<0.001	<b>3.01</b>	<0.01
	4-5년	<b>2.63+</b>		<b>3.21</b>		<b>2.95+</b>		<b>3.01</b>	
	6-10년	<b>2.83</b>		<b>3.20+</b>		<b>3.12</b>		<b>3.09</b>	
	10년 이상	3.05+†‡		3.44+		3.32+		3.26	
직급	평활동가	<b>2.63+†‡</b>	<0.001	<b>3.15</b>	0.079	<b>3.02</b>	<0.05	<b>2.95+</b>	<0.01
	중간책임자	2.91‡		3.29		3.16		3.05	
	상급책임자	2.94+		3.35		3.25		3.24+	

- 세대 경험, 세대 갈등, 계급 갈등, 사회적 인정, 활동 여건의 차이
- 허리층 활동가의 부재, 청년세대의 이탈을 증거하는 데이터

### #지속가능한 활동의 조건 사회적 인정

- 그룹/연령/경력별 지속가능한 활동의 조건의 우선순위가 다른데, 그 중 남성/40대 이상 /10년차 이상 /책임자급 이상은 ‘사회적 인정’을 제일 우선에 둬
- 여성/40대미만/10년차 미만/평활동가에게 사회적 인정은 사전에 없는 단어는 아닌가
- ‘사회적인정’은 조직 밖의 체계, 인식, 제도 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여성/40대미만/10년차 미만/평활동가에게 주로 나온 ‘의사소통’과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명함과 직책이 사회적 인정의 방편이 되는 현실 (전 구성원의 간부화)

발제1\_〈표 2〉 서울과 비서울의 응답자 특성

구분	지역		p-value	
	서울	비 서울		
평균 경력 (년)	9.4	12.2	<0.001	
평균 나이 (세)	41.5	46.2	<0.001	
직급	평활동가	165 (37.6%)	51 (17.3%)	<0.001
	중간책임자	118 (26.9%)	65 (22.1%)	
	상급책임자	78 (17.8%)	140 (47.6%)	
	기타	78 (17.8%)	38 (12.9%)	

### #활동가의 건강

- ‘건강하지 않은편이다’가 매우 높은 편. 딱히 질병은 없지만(있는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냄
- 건강을 위해 정기적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음
- 일부 기업은 당사자의 건강검진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도 해서 놀랐던 경험

### #복리후생과 급여

- 금전으로 보상을 하기 어려우니 시간(휴식)으로 보상하는 체계
-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조직규모의 영향이 아닐까 추측해 봄 (사람은 적고, 일은 많고, 게다가 단체 내부의 일이 아닌 외부와 겨우 조율한 일정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지간한 통증의 생리휴가는 견디는 것으로 대체한 경험)
- 안정적 삶 측면에서 볼 때 활동가들은(아.. 누구나 그렇지...) 의료와 주거부분이 가장 취약한 편.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마련되길 바람

### #마지막

- 통계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축적되었을 때 더 큰 의미성을 만들어냅니다. 부디 ‘한국노동패널조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장기적 계획 안에서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동행〉 감사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단상

이진홍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먼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지한 이야기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곳곳에서 많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저의 소감과 제언 등을 짧게 적어봅니다.

1.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평활동가가 스트레스와 절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공익활동의 전망도 20~30대와 평활동가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40대 후반 남성, 경력 20년에 가까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 자신과 우리 단체를 성찰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과반이 넘는 활동가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특히 30% 가까운 활동가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보며 놀랐습니다. 활동가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문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건강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3. 공익활동가의 건강을 위해 동행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기금을 확대해 더 많은 활동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활동가 당사자가 결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서로의 도전을 자극하고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동행에서 기획해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 카카오프로젝트100)
4.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조직문화의 민주성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 20~30대, 경력 3년차 이하, 평활동가는 모두 1순위를 조직문화를 선택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남성, 연령이 높고, 경력이 오래되고 직급이 높을수록 사회적 인정과 단체 소속의 안정성을 선택해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등 조직문화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NPO 또는 NGO 지원센터가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5. 공익활동의 전망에 있어 20대, 30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 단체가 추구하는 활동 내용과 방식, 조직문화 등이 현재의 시대흐름과 청년세대의 스타일에 맞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며, 그러한 시도 자체를 20~30대 활동가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6. 공익활동가의 복리후생제도에서 각종 휴가 및 휴직과 같은 시간적 복리후생제공은 전체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반면 재정 부담이 큰 금전적 복리후생은 더 적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단체의 재정여건이 월등히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발제자가 제안한 것처럼 학비, 주택마련비 용자 등의 지원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7. 공익활동가의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빈번한 야근과 주말근무입니다. 그런데 회원들과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 회의, 행사를 야간과 주말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 방법으로는 대체 휴일과 출근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활동가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설문조사 분석 과정에서 비교집단을 전체 노동자보다 더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사회복지사 직업군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해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토론문

신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익활동가를 위해 의료지원, 쉼과 교육지원을 비롯하여 대출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인 ‘동행’에서 이번에 수행한 연구는 그 동안 공익활동가들의 일과 생활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시적 대응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표본설계부터 시작하여 조사표 구성 및 분석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선 들었던 궁금증은 공익활동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 인가였습니다. 조사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에 적합한 설문을 개발하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공익활동가에 특화된 조사보다는 일반적인 노동자와의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조사인 한국노동패널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대비해서 공익활동가들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복지 등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분석 결과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고용조건과 복지실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는 비율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망임이라는 측면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87% 수준으로 일반 임금노동자에 비해서는 12%p 더 높은 편이지만, 공익활동을 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공익활동가의 직무특성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안현찬 박사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리후생 제도는 일반임금노동자에 비해 경제적 복지보다는 비경제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학업휴직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생활균형 또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본인 혜택을 고려했을 때 제도가 도입이 되면 공익활동가가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익활동가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비용을 제외한 경제적 복지지원이 낮은 편이지만, 자녀의 학비나 보육비 지원 등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지원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만족도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에 대한 자긍심은 높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개인발전가능성을 토대로)은 높고 만족할만한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익활동가의 개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구설계과정에서 개념의 조작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익활동가의 개념이 무엇이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서울시가 지원정책을 마련하기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이 일반임금노동자와의 단순 비교 목적이 아니라 공익활동가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수요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 시민사회 내부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할 때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

## 1. 우리가 처한 조건들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협하는 큰 요인은 경제적 안정성과 새로운 활동가의 재생산 구조이나 두 가지 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풀기 어려운 상황임
  - 생활의 불안정성은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대 활동가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이나 법/제도/정책은 시민사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만 있을 뿐이지 시민사회활동가 지원을 위한 뒷받침이 전무한 상태임
  - 활동가의 재생산 구조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의 부재, 경력개발 혹은 경력경로(Career path)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조직문화의 민주성, 소통의 문제 역시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회원의 회비/후원금에 의존한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활동을 매개로 연결을 시도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으나 시민사회 내부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협력의 시너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SIB등 활용가능한 자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함.
- 시장, 공공 영역과 비교하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것도 활동가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원인
  - 현재 활동가의 다수는 공공의 지원이나 시장의 지원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
  - 그럼에도 활동가의 기여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인색한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뚜렷이 없는 상태임

- 그러나 결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최종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단체와 활동가라는 측면에서 활동가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통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

## 2. 지속가능한 활동, 활동가 지원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할 때

- 미국의 경우, 대다수 활동의 지원은 민간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4가지 정도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4가지 활동은 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작동함
  - 공간지원을 통한 NPO간 협력 환경 조성
  - 비영리 채용 플랫폼을 통한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 기부나 후원의 매개 역할 (집중해서 모으고 배분하는 전략)
-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대안들
  - 시민사회버전의 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기업/공공/개인의 후원을 모아받아 배분 → 활동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 공공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 공공의 기초지원이후 자산화 방식 추진  
(현재 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에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NPO도서관 설립 포함)
  - 소셜벤처, 의료생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NPO박람회 참가 업체, 사회과학서점등의 연결을 통해 비영리에 특화된 쇼핑몰(?) 구축으로 소비와 생산의 순환 경로구축
- 위의 3가지 제안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청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

공익활동가 선행연구조사 검토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조건에  
관한 조사들

---

#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조건에 관한 조사들

조철민  
NPO스쿨

## 1. 개요

-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 이후 199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됐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시민사회 공익활동주체인 단체와 활동가의 실태를 이해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조사·연구도 시작됨
-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조사·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조사·연구는 주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표 II-1〉 공익활동가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강선미·이기호(1997)	한국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신명호·이근행(2000)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의식과 생활
윤상철(2005)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분립과 중앙집중성
이현희(2006)	한국 NGO의 인적자원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김승호(2007)	민주노총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및 함의
임진희(2009)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사업 연구: 민주노총 사업을 중심으로
김동춘·김정훈·김형철(2013)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연도미상)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조경숙·강지형(2015)	서울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 복지수요조사연구. 서울연구원
충청북도NGO센터(2015)	충북지역 NGO 활동가 직무환경 및 활동 만족도 조사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2018)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서
김동민·정석(2019)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의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여부를 중심으로

## 2. 실태

- 각 조사·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태들을 활동가의 ‘생활’, ‘활동’, ‘조직’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2〉 전반적인 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파악된 현황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강선미·이기호(1997)	=경제적 어려움, 생활보장 불안정 =재충전·자기발전 기회 부족 =가정에 불충실, 불규칙한 생활 =가족의 이해 구하기 어려움	=사회적 인정 부족 =운동적 전망 찾기 어려움 =대안적 사회상, 장기적 운동전망 부재 =대중운동적 취약성 =시민사회 주체형성·시민참여 부족	=재정의 취약성 =운동내부 세대갈등 =활동가와 조직의 가치관 불일치 =적성·능력 발휘할 기회 부족 =동료·상사와 관계 어려움
신명호·이근행(2000)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고 싶음	=하고 싶은 활동 재량껏하고 싶음 =타인·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바람	=동료·선배가 좋음
윤상철(2005)	=인적 재생산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이념적 비전의 위기:정치사회와의 관계에서 독자성 =역할의 위기: 대의의 대행, 정치권 진출에 의한 공동화	=조직내 갈등: 조직운영적, 인간적, 이념적 =조직간 연대에 대한 인식차이 =젊은 세대와 이전세대간 차이
이현희(2006)	=높은 학력과 전문성 보유 =근무기간 짧은 경우가 많음 =활동의 사명·매력 때문에 활동 =활동을 중단할 것 같은 연령: 47.8세 =자기개발 어려움: 비용·시간부족 =근무시간: 41~45시간이 주류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활동가가 다수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어려움 =직무만족도: 보통	=조직문화 만족도: 낮은편(성과보상체계 불만, 인간관계 만족) =월급 90~120만원이 주류, 걱정급여 인식: 120~160만원이 주류 =남성·여성간 직급차이 =조직내 성장가능성 높다는 활동가가 다수 =조직내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 필요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김승호(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규칙적인 생활, 가정생활 불충실</li> <li>=재충전 기회 부족 없어</li> <li>=생활보장 어려움</li> <li>=자기개발을 위한 시간·비용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변화 대응 전문성 부족</li> <li>=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li> <li>=관성적·관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li> <li>=활동가 간 세대차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하조직 간부·조합원으로부터 인정 못받음</li> <li>=입장차이 갈등, 조합원과의 인식·정서 차이</li> <li>=활동가를 실무자 취급</li> <li>=조직과 내가 겹돈다는 느낌</li> <li>=활동성과 외적요소에 따른 평가</li> <li>=조직 정보·의사결정의 소수독점</li> <li>=지도부 비판, 반대의견 개진 어려움</li> </ul>
임진희(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고충</li> <li>=일·가정의 불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세부적 사업계획 부재</li> <li>=개인 활동역량(지식, 경험)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도부와 현장의 괴리</li> <li>=사무집기·활동비 부족=잡무로 인한 조직화 사업 집중 어려움</li> <li>=활동가 한명이 모든 것을 다해야 함</li> </ul>
김동춘·김정훈·김형철(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가 소득: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열악</li> <li>=가족·지인의 도움으로 생활유지 경우 많음</li> <li>=소득 만족도 낮음</li> <li>=소득에 비해 많은 부채. 연령이 많을수록 많은 부채</li> <li>=노후대비가 가장 불안하지만, 질병, 사고, 주택관련 대비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보험 실시여부는 양호. 퇴직충당금은 마련 단체는 60% 가량</li> </ul>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연도 미상)	<p>=주거형태: 자기비율이 다수(44.6%) =단체급여로 생계유지 어려움. 63.8% 배우자도움 받고 있음 =54.5%가 부채 있음. =54.5%만 미래대비형금융상품 가입 =노후대비가 가장 어렵고, 생활비, 주거비가 뒤를 이음.</p>	<p>=활동을 통한 성취도, 전문성 향상 낮음</p>	<p>=평균급여: 111만원 =노동시간: 50%가 법정노동시간 초과근무 =단체의 지원: 교육훈련지원(69.8%)이 다수이고, 안식휴가, 상조회가 뒤를 이음. =4대 보험은 대부분 도입, 50%가량의 단체만 퇴직충당금 마련</p>
조경숙·강지형(2 015)	<p>=일평균 근무 9시간, 근무만족도 높은편 =평균월소득 334만원, 가구소득 평균기여율 64% =주거형태: 자가 33.3%, 전세 33.3%, 월세 20% =평균자산 6,325만원, 저축액은 낮은편 =부채: 학자금과 주거비용이 주된 목적 =다수 생활비 부족 경험 =대부분 민간보험 가입 =불안요인: 노후, 질병, 주거, 자녀교육</p>		<p>=평균급여: 남성 167.5만원, 여성 161.1만원 =활동가 복지제도가 없는 단체 36.7% =활동가들의 단체 복지제도 만족도 낮은편 =가장 많은 복지지원은 안식휴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식비지원 순</p>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충청북도NGO센터(2015)	<p>=근무시간: 절반 가량이 40시간 이하 근무</p> <p>=현소득으로 생활 불가능(56.2%), 2/3가 배우자의 도움 받고 있음</p> <p>=노후대비가 가장 불안, 경제적 빈곤이 현재 가장 큰 어려움</p> <p>=향후 예상 활동지속 연수: 10년이상(15.9%), 5년(20.3%), 3년(14.5%)</p>	<p>=활동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편</p> <p>=47%가 업무와 본인 특성이 부합함</p> <p>=다수가 업무의 자율성, 성취성, 전문성, 만족도가 양호한 편</p> <p>=다수가 활동 그만둘 의사 없는 편</p>	<p>=월급여액 120~150만원(28.6%), 적정급여액 160~200만원(39.4%) 응답이 다수</p> <p>=대부분이 4대보험 가입</p> <p>=근무환경 만족(34.2%), 불만족(30.1%)</p> <p>=조직에서 성장가능성 높다고 보는 편</p> <p>=대부분 조직이 교육훈련에 적극적인</p> <p>=조직과 활동가 비전일시하는 편</p> <p>=조직 리더역할, 소통, 의사결정 양호한 편</p>
한신대학교 형화와공공성센터(2018)	<p>=노후·질병·사고 대비 업음 63%</p> <p>=시간·비용·주변환경으로 인한 자기계발 어려움</p>	<p>=근무만족도 높은편</p> <p>=자신이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편</p> <p>=단체에서 성장하고 있음(52%)</p>	<p>=평균월급: 121만원, 100만원 이하 35%, 급여만족도 낮은편</p> <p>=단체재원: 지원사업(지자체·기업 등)(46%), 회비(후원) 31%, 수익사업 10%</p> <p>=활동가 총원 어려움(75%),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이 원인</p> <p>=단체복지제도 없음(35%), 미흡(36%)</p>

### 3. 개선을 위한 제안

○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실태 관련 조사·연구 중 다수는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활동가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표 II-3〉 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 제안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강선미·이기호(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대중의 참여방식 개발</li> <li>=(지방)정부와 사회운동단체간 역할 재정립</li> <li>=진보적·민주적 사회운동 정치세력화</li> <li>=국제적 연대방식 개발</li> <li>=인간과 자연 연대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조직 역할분담과 연대방식 개발</li> <li>=정보화시대 운동방식 개발과 조직개편</li> </ul>
신명호·이근행(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li> <li>=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li> <li>=휴식하거나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li> <li>=친지·친구들이 인정·격려해주는 사회적 분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위</li> <li>=운동적 전망</li> <li>=모범적인 모델로서의 선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내에서의 자기역할에 대한 인정과 격려</li> <li>=창의적 근무조건과 자율적 재량권</li> </ul>
윤상철(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념적 지향성·비전 정립</li> <li>=국가·정치사회와의 관계에서 독자적 역할</li> <li>=활동가 지속적 충원을 위한 전망</li> </ul>	
이현희(2006)	=NGO인적자원의 현황과 특성 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li> <li>=비전 제시와 전문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적 안정과 근로조건향상의 향상</li> <li>=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의 효율성</li> </ul>
이현희(2009)	=교육훈련 내용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구체성, 집중과 선택의 효율성</li> <li>=조직화 매뉴얼 필요</li> <li>=조직활동가를 보는 시각의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기구·조직화 지원시스템 구축</li> <li>=재교육(훈련) 시스템 구축</li> <li>=명확한 선발기준, 평등한 처우</li> </ul>
김동춘·김정훈·김	=활동가들의 생활상		

조사·연구	파악된 현황		
	생활	활동	조직
형철(2013)	곤란함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공제회 설치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연도 미상)	=경제적 지원사업: 활동가 수당, 긴급자금 지원 =활동지원사업: 자기계발 및 재교육, 안식년, 공간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주거, 보육, 의료 등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공익재단의 설립과 지역거점센터 운영	=시민사회운동의 재-활성화와 단체재정 자립 =시민사회단체 후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조경숙·강지형(2015)	=활동가 공제회 사업: 장기적립형공제급여, 소액대출, 회원복지서비스, 기관지원 서비스 =공익활동가 임대주택 =공익활동가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법제 개선: (가)시민사회공제회법, (가)시민사회발전기본법 =공익활동지원기금 설치

#### 4. 소결

##### 1) 실태

###### 가. '생활'의 측면

- 공익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20여년간 변함 없이 경제적인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로부터 생활의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 위험대비 미흡 및 부채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고, 종국적으로는 활동가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 문제로 이어짐
- 아울러 쉽과 재충전, 자기계발을 위한 여건(시간이나 비용 등) 부족 역시 꾸준히 나타나는 어려움이며, 일·가정 불균형 문제, 활동에 대한 가족·지인들의 이해 등도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남

###### 나. '활동'의 측면

- 생활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활동가의 일에 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만족의 요소에는 자율성, 활동을 통한 성취, 자아실현과 성장 등이 포함됨

- 반면 활동의 경력이 길어지면서 활동이 관성화 되는 느낌이나, 자신의 전문성·활동역량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나타남

#### 다. ‘조직’의 측면

- 조직의 측면은 활동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돼 있고, 많은 활동가들이 대체로 ‘활동’에는 만족하면서도, 활동의 기반이 되는 ‘조직’에서 느끼는 불만들이 나타남
- 많은 단체들이 재정상태가 취약하고, 이로 인해 활동가들의 평균적인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해 왔고,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한 급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남
- 최근 들어 대다수 단체들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마련해 두고 있지만, 퇴직금이나 복지지원 등은 미흡한 상황임
- 재정적 어려움 만큼이나 활동가들이 느끼는 불만은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임. 여기에는 활동가와 조직의 가치관 불일치, 선후배 활동가간 세대차이, 의사소통의 부족이나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이 포함됨

## 2) 개선을 위한 제안

#### 가. ‘생활’의 측면

-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가 공제회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아울러 활동가들을 위한 휴식·자기계발의 기회마련,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나. ‘활동’의 측면

- 활동가들이 활동에 만족하는 요인인 비전, 전망, 의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요청됨
- 아울러 활동가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재단, 지역거점센터 등 중간지원기구 설치가 제안되고 있음

#### 다. ‘조직’의 측면

- 활동가의 급여와 근로조건 문제의 경우 단체들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활동가공제회 설립과 같은 공동의 사회적 노력이 요청됨
- 조직문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활동가들의 성장과

업무간 균형,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간 민주적 관계에 기반 한 조직문화개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좀더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가)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도 제안되고 있음

### 3) 조사·연구 관련

- 활동가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대다수 활동가들이 생활상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런 상황은 지난 20여년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공통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나, 활동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남. 이에 따라 조사·연구의 항목과 요소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조사·연구 대상의 범주, 즉 지역(전국 혹은 특정 지역)이나 영역(시민사회 전반 혹은 특정 활동부문)에 따라 실태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
  - ※ 예: 들어 재정규모가 큰 단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서울 지역이나, 국제개발단체, 전국적 조직 등의 포함 여부 등
- 최근 들어 복잡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욕구의 해결, 민관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공익활동가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돼야 함. 이를 위해 민간주체나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조사·연구 외에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제도화가 필요함

### 참고문헌

- 김동춘·김정훈·김형철. 2013. 시민사회 활동가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 김승호. 2007. 민주노총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분석 및 함의. 노동사회. 121(0). 12-30.
- 신명호·이근행. 2000.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의식과 생활. 도시와빈곤. 43(0). 97-121.
- 윤상철. 2005.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분립과 중앙집중성. 경제와사회. 66(0). 39-71.
- 이현희. 2006. 한국 NGO의 인적자원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상근 활동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진희. 2009.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사업 연구: 민주노총 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18(0). 113-151.

조경숙·강지형. 2015. 서울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 복지수요조사연구. 서울연구원.  
충청북도NGO센터. 2015. 충북지역 NGO 활동가 직무환경 및 활동 만족도 조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도미상.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  
안. 경기도의회.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2018. 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  
서. 서울시NPO지원센터.

---

공익활동가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설문지

---

##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상호부조, 협동, 연대의 방식으로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의료지원, 쉼과 교육 지원, 대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 개발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조사주관기관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조사대행기관 : 주)서베이피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공익활동 현황(9)

**A1. 귀하는 현재 공익활동가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 ① 예 (☞ A1-1로 이동)                      ② 아니오(☞ 조사 종료)

**A1-1. (A1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올해까지 몇 년 동안 공익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중간에 쉼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총 (            )년(주관식)

**A2. 귀하가 현재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주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 ② 팀장 및 부장(중간책임자)
- ③ 사무국(처)장 및 사무총장
- ④ 기타
- ⑤ 우리 단체는 직급 구분이 없다

**A4-3. 귀하가 속한 단체는 급여를 받는 활동가가 모두 몇 명입니까? 전국단체의 지부인 경우는 지부 소속 인원수로만 응답해주시오.**

총 (            )명(주관식)

**A4-4. 귀하가 속한 단체의 조직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임의단체(비법인 또는 미등록단체)
- ②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 또는 재단법인)
- ③ 다른 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등)
- ④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⑤ 중간지원조직
- ⑥ 기타

**B. 공익활동가의 건강(10)**

**B1. (주관적 건강수준)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건강한 편이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다

**B2. 그렇다면 귀하 나이의 보통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건강한 편이다
- ② 건강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 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다

**B3. 귀하는 아래의 만성질환 중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② 없다'에 응답해주시오.**

만성질환		있다	없다
순환기계	예) 고혈압, 뇌졸중(중풍, 뇌경색),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기타 심장질환	①	②
내분기계	예) 당뇨병, 갑상선 질환	①	②
근골격계	예)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좌골신경통	①	②
호흡기계	예)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결핵, 결핵	①	②

**B4.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하시는 것부터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운동
- ② 식사조절
- ③ 담배나 술을 절제한다
- ④ 보약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 ⑤ 목욕, 사우나, 찜질 등을 자주 한다
- ⑥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한다
- ⑦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
- ⑧ 기타
- 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B5. 귀하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하루 (        ) 시간(주관식)

**B6. 귀하는 지난 1달 동안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상당히 좋다    ③ 상당히 나쁘다    ④ 매우 나쁘다

**B7. 평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으십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 B7-1로 이동)
-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 B7-1로 이동)
-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B7-1. (B7의 ①, ② 응답자만)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전문가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공식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B8.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B8-1로 이동)                      ② 없다

B8-1. (B8의 ① 응답자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전문가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공식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C. 공익활동가의 소득과 복지제도(10)**

※ 다음은 공익활동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공익활동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1. 귀하가 공익활동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여기서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소속 단체에서 받는 기본급과 수당, 강의나 회의 등 외부활동으로 받는 수당 등을 합친 총액을 말합니다.

월 (                      ) 만원(주관식)

C2. (A4의 ①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임금체불에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소속 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돈을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C2-1로 이동)                      ② 없다

C2-1. (C2의 ① 응답자만) 실례지만 귀하의 임금체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                      )만원(주관식)

C3.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은 얼마입니까? 소득이란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이란 저축을 제외한 부식비, 주택임대

료, 자녀양육비, 취미활동비 등 가구의 일상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 ( ) 만원(주관식)

월평균 지출 ( ) 만원(주관식)

**C4. 현재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 ① 있다 ( )만원(주관식) (☞ C4-1로 이동)      ② 없다

**C4-1. (C4의 ① 응답자만) 부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 ② 생활비 보전
- ③ 의료비
- ④ 교육비(학자금 대출 등)
- ⑤ 기타

**C5. 귀하가 미래를 생각하실 때 금전적인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불안감이 큰 것부터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 ② 가족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 ③ 본인의 노후생활비
- ④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 ⑤ 가족 부양비
- ⑥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⑦ 주거비용
- ⑧ 생각지 못한 사고 및 상해
- ⑨ 본인의 교육비 및 자기계발비용
- ⑩ 기타

**C6. 귀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1천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① 예금, 적금 등 모아둔 재산을 쓴다
- ②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
- ③ 동료,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빌린다

- ④ 기타
- ⑤ 급전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 다음은 단체에 소속된 공익활동가의 복지후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C7. 귀하는 소속 단체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국민연금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2) 국민건강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 고용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4) 산재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C6. 다음은 직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가급여나 복리후생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1)귀하의 소속 단체에서 현재 제공(시행)하고 있는지, (2) 제공한다면 귀하께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복리후생 항목 I	(1) 소속 단체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1) 법정퇴직금	①	②	③	①	②
(2) 유급휴가(정규, 연월차)	①	②	③	①	②
(3) 생리휴가	①	②	③	①	②
(4) 산전후휴가	①	②	③	①	②
(5) 병가(상병휴가)	①	②	③	①	②
(6) 육아휴직	①	②	③	①	②
(7) 대체휴가	①	②	③	①	②
(8) 학업휴직(유급/무급)	①	②	③	①	②
(9) 유급 안식년(월)	①	②	③	①	②
(10) 경조사 휴가(특별휴가)	①	②	③	①	②

복리후생 항목 II	(1) 소속 단체에서 제공 여부			(2) 본인의 혜택여부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모른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1) 식사비용보조	①	②	③	①	②
(2) 학비보조	①	②	③	①	②
(3) 주택마련지원 (융자 등)	①	②	③	①	②
(4)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①	②	③	①	②
(5) 경조사지원	①	②	③	①	②
(6) 휴양(휴가)비용지원	①	②	③	①	②
(7) 보육비지원	①	②	③	①	②

**D. 공익활동 만족도와 전망(7)**

**D1. 귀하의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활동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모두 해당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활동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활동시간(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생활의 균형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S4의 ① 응답자만 해당	(8) 업무 또는 직급 배치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 ②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스럽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D3. 귀하는 어떤 공익활동이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단체 소속의 안정적인 공익활동
-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활동
- ③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공익활동
- ④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공익활동
- ⑤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공익활동
- ⑥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익활동
- ⑦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등 조직문화가 민주적인 공익활동

D4.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이라면 최소 얼마 이상의 임금 또는 수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평균 또는 연봉 중에 응답하기 편하신 것을 하나 응답해주시시오.

(1) 월평균 ( ) 만원 이상(주관식)

(2) 연평균(연봉) ( ) 만원 이상(주관식)

D5. 귀하는 공익활동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활동의 전망에 대한 귀하의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아주 그렇다
(1) 한국의 공익활동은 전망이 밝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활동하는 분야(주제)의 공익활동은 전망이 밝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단체의 공익활동은 전망이 밝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개인의 공익활동은 전망이 밝다	①	②	③	④	⑤

D6. 귀하는 공익활동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대단히 많다 (☞ D6-1로 이동)
- ② 많은 편이다 (☞ D6-1로 이동)
- ③ 조금 있는 편이다
- ④ 거의 없는 편이다

D6-1. (D6의 ①, ② 응답자만) 후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생활이 불안정해서
- ②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 ③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 ④ 내 적성이나 취향에 맞지 않아서
- ⑤ 임금 또는 수입이 적어서
- ⑥ 의사소통과 인간관계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 ⑦ 기타

**E.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6)**

※ 다음은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다소 길더라도 지원방안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신 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E1. 이번 질문은 '공익활동가의 공식 직업군 분류'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은 정부의 직업분류표에서 '기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경력 인정, 보험가입 및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를 독립된 공식 직업군으로 분류하도록 개선한다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E2. 이번 질문은 '정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개선'입니다. 현재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가의 인건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 또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인건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E3. 이번 질문은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자산화'입니다. 한국은 많은 공익활동 단체가 재정 기반이 취약한 데 비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기금과 펀딩으로 공익활동 단체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그 운영수익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자산화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E4. 이번 질문은 '시민공제회법 제정'입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조자립을 목적으로 보험과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공제조합도 정식 공제회로 인정받아 활동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공제회법을 제정한다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E5. 이번 질문은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 농민, 문화 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런 편이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르겠다

**E6. 지금까지의 사회적 지원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익활동가의 공식 직업군 분류
- ② 정부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 개선
- ③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자산화
- ④ 시민공제회법 제정
- ⑤ 공익활동가 기본소득 도입

**F. 응답자 정보(8)**

F1. 귀하의 법적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F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리스트 선택형)

F3. 귀하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가구 구성원은 가족, 친구, 애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_\_\_\_\_명(주관식)

F4. 귀하는 현재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구성원은 몇 명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F5. 귀하는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마리(주관식)                      ② 없다

F6. 귀하 가구의 현재 주택 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소유  
② 전세 (☞ F6-2로 이동)  
③ 월세(반전세/사글세) (☞ F6-1로 이동)  
④ 무상 (☞ F6-2로 이동)  
⑤ 기타 (☞ F6-2로 이동)

F6-1. (F6의 ③ 응답자만) 귀댁의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_\_\_\_\_만원(주관식)

F6-2. 귀하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사회주택이 제공된다면 입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회주택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시세 80%)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최장 10년) 임대주택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주택 내부의 공용공간과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합니다.

- ① 있다                      ② 없다

♣ 긴 시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익활동가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 조사>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사례품(통합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품을 받으실 정보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을 감사  
드립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드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본 조사 설문참여 대상자 분들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비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전화

3. 개인정보와 보유 이용 기간

- 조사 종료 후 3개월

4. 사례품 지급 시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업무 위탁에 대한 업체 안내

-

\*동의여부

\*휴대폰번호\_\_\_\_\_

###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연구조사 기획위원

고정근(환경정의 부소장), 김소연(시민사회 현장연구자 모임 들파 대표), 류홍번(공익  
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운영위원장), 신권화정(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여진(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이승훈(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정민석(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조아신(지리산이음 이  
사), 조철민(NPO스쿨), 권다운, 이가현(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활동가)

DongHang Activist Co-operative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4층 T. 02-831-6880 F. 02-6280-3924  
[www.activistcoop.org](http://www.activistcoop.org)